MAR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79 1982년3월2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rch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인 쇄 인:박 정 서
광 고 부 장:송 광 호

온타리오주 투자이민규정 변경

이민성에 직접신청

대리수속 배제, 교포 이용자 늘어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2월3일부로 투자이민 심사규정을 개정, (1)이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을 통해 접수하며, (2)변호사등의 대리 서류제출을 거부키로했다.

이제껏 온타리오주는 변호사, 계리사또는 유사한전문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후 연방이민성에 이민허가를 건의했다.

22일 담당온타리오주 산업무역성의 소기업 심사과 짐·케릭(Carrick)과장은본사와의 단독인터뷰에서"새 조처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민국이 심사를 의뢰한사업계획서만 검토, 많은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또한 이민신청자도 서류를 직접작성, 서류마련등에 들던경비가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 희망자는 지금까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서류작성 제출을 위임한대신 3천~1만5천달러의 수고비를 부담했다.

서류작성상 변호사, 계리사등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줄것은 분명하다.

동부지역 유일의 교포변호사인 강찬영씨는 이에대해"규정변경통고를 이미받았다. 정부가 투자이민을엄격히 심사해서 허가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2월3일전 제출된 서류는 종전과같은 심사과정을 밟으며 이민희망자는 거주지역 해외이민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할수 있다.

케릭과장은"일반인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시 언제든지 서류문의에응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서 작성을 지나치게 어렵게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정확한 계획을세워 타이프치거나, 아니면 손으로써서온타리오주의 고용증대및 자본유치에 기여한다는것을 납득만 시켜주면 된다" 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76년부터 연간 200~500건의 투자이민을 허가, 2천내지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증대했다.

작년에는 약 150건이 허가돼 3천명이 직장을 갖게 되었다.

교민사회에서는 약2년전부터"투자이민에는 10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이나돌았고작년초부터 도나츠·샵등에 투자해서 이민하는 교포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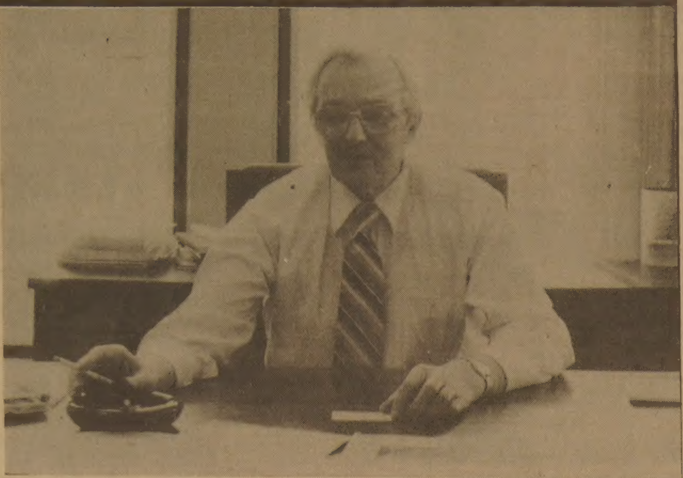
이민법에 의하면 투자이민(Entre-preneur's Class)을 하려면 5명이상의 영주권자및 시민권자에 새로운 직장을 창출해야한다.

투자액에대한 규정은 없다. 투자이민은 온타리오이외의 주에서도 취급하나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케릭과장에 의하면 이미 제출된 서류심사가 최근지연된것은 9월이후 투자이민 신청이 급격히 늘었고, 「부작용」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민신청을 둘러싸고 일부 변호사와 관계자간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만달러를 투자, 5~6명의 고용을 증대하는것보다는 3만달러를 투자해서 2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사업이 허가된다"고 말한 케릭씨는"한국등 일부정부가 이민자의 재산반출과 해외투자를 제한하고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해당정부와 본인과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조 미래 기자〉



◇짐·케릭과장

실업사태 무릅쓰고
2만여 특수기술자 영입

캐나다 실업인구가 기록적인 110만명에 달했음에도 불구, 해외에서 수만명의 숙련공들을 유입할 것이라고 고용및 이민성 로이드·액쉬디 장관이 밝혔다.

액쉬디 장관은 캐나다인력시장에서 몇몇직종의 특수기능공및 숙련공이 부족, 국내실업률 증가가 심각함에도 불구, 금년 2~3만5천명의 해외인력을 고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필립스 캐나다 제조협회장은 캐나다는 기계제작공(Machinist) 컴퓨터프로그래머및 여러분야의 특수전문기술자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캐나다로 오게될 해외숙련공들은 캐나다경제에 다소 영향을미쳐, 다른 직업들을 창출하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폈다.

액쉬디 장관과 필립스회장은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자양성훈련에 주력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기술자들을 이민시켜 왔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연방및 주정부는 숙련기술자양성을위해 커뮤니티·칼레지등을 집중지원, 서서히효과를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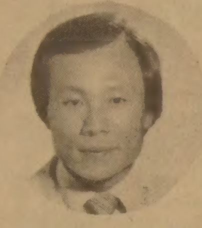
실질 임금 하락

(서울20일=연합)한국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지난2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20일 [illegible]조사가 밝혔다.

노동부에의해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12,477원(미화303달러)로 그 전해보다 명목상으로는 20.7%가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1%떨어졌다.

80년도에는 그전해인 79년보다 월평균 실질소득이 4.1%하락했다.

무역인협회 회장에
영리무역의 이영현씨



◇이영현씨

새 무역인협회 회장에이영현씨가 선출됐다.

지난19일(금)오후5시 토론토무역관 회의실에서 있은 무역인협회 총회는 2번 연임한 이창복회장(팬아시아 대표)후임으로 11년간 무역에 종사해 왔으며, 아이스하키회장및 YMCA합창단이사장을 맡고있는 이영현씨(영리무역대표)를선출했다.

이날총회는 또 금년도사업목표로 세미나를 통한새회원참여고취, 세계 박람회참가를 위한 모국방문, 한카 무역증진 등으로설정했다.

무역인협회는 전년도 결산에서 1700달러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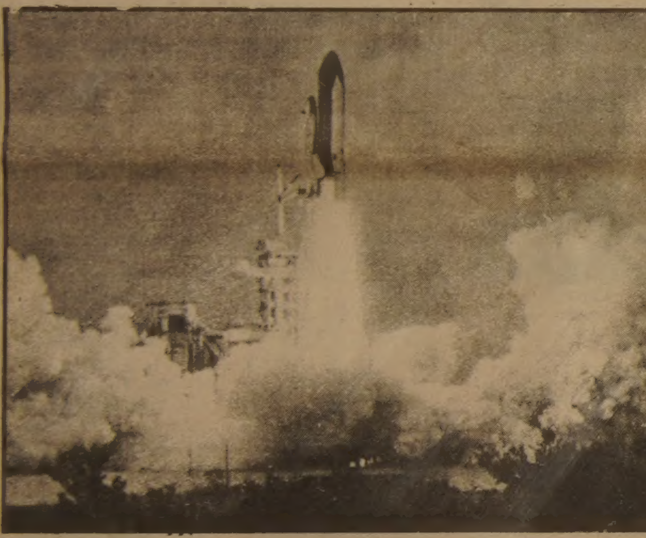
회원약 25명이 모인이날총회에이어 무역인들은 곧 한국으로 떠나는 조성호토론토 무역관장과 이광성국제상사 토론토 지사장의송별연을 가졌다.

더 타임즈 編輯局長에
喜前首相조카 喜氏

〈런던-. .〉 1백97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최대 일간지 「더 타임즈」의 새 편집국장에 찰스 더글라스-흄이 임명 되었다.

더글라스 흄은 더글라스흄 전수상의 조카로 동 신문사 편집부국장 이었다.

해롤드 에반스 전 편집국장은 발행인 루퍼트멀도크와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사임했다.



◇22일 캐입·캐네버랄 미 항공기지에서 발사되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 이날 세번째로 발사된 콜럼비아호는 지난 2번의 여행에서보다 더 긴 임무를 띄고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KAL 운항時間 전면改正

LA—서울直行便 비행2시간단축
호놀룰루—서울間 直行便도 신설

대한항공(KAL)은 4월1일부터 항공기 운항시간을 계절변경에 따라 승객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정한다.

조우원 KAL 미주본부공보관이 19일 발표한 스케쥴에 의하면 신설되는 LA발 서울행 직행편은 B-747·SP 장거리용 신형항공기로 수·금·토에 운항, 앵커리지 기착없이 서울로 향해 종전보다 2시간이상 비행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KAL은 호놀룰루-서울간 직행편을 신설하여 주2회 취항시킨다.

신설된 LA-서울 직행인 KE 011편은 하오1시(4월25일부터는 섬머타임으로 하오2시출발)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서울-LA도착 직행012편은 상오10시에 (4월25일 이후는 상오11시) LA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서울-동경-호놀룰루-LA 운항 KE002편은 종래 하오6시35분에 도착했으나 4월1일부터는 하오7시20분(4월25일부터는 하오8시20분)에 도착한다.

한편 LA-호놀룰루-동경-서울인 KE001편은 LA에서 현재 상오8시40분에 출발했으나 4월1일부터는 상오9시30분(4월25일부터는 상오10시30분)에 출발케 된다. 그리고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서울-LA노선은 종전에는 주4회 운항했으나 4월1일부터는 주3회(화·목·일)로 변경하는데 서울발 LA도착 016편은 하오3시30분 도착하고 LA발 서울행은 하오10시20분 출발한다.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 0일	14.5%	
	36 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8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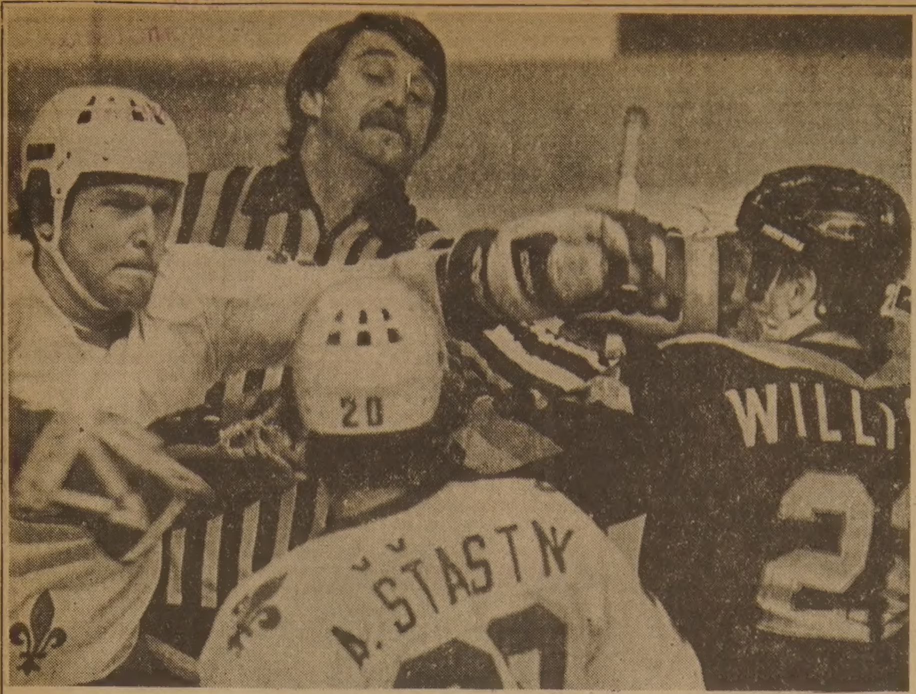
○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라도…

값이 시중가격의 반액입니다.
빅·세븐선물센터가 드리는 LONDON FOG
봄맞이 코트대매출
남자 LONDON FOG $80.
세무봄잠바 $90.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349.
○울트라스웨드여자용 상하복 $349.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본점에서 직수입한 보양강장제 일절, 녹용제품, 할인판매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차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한국연속극 염가로빌려드립니다
온가족이 한자리에서 즐기실수 있는비디오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 테프와 비데오 테프 다량입하!!
○생활의 활성화는 빅세븐이 직수입한 녹용제품으로!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34,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퀘벡의 피터·스태스니와 뱅쿠버의 타이거·윌리암스가 주먹다짐을 주고받고있다. 이 싸움을 도화선으로 퀘벡관중들과 뱅쿠버팀의 코치선수들이 싸움을 벌여 경찰조사를 받고있다.

하키코치·선수 관중들과 난투극

경찰조사중, 선수보호 대책아쉬워

(퀘벡) 최근 점점 더 해가는 하키장의 난투극때문에 NHL운영진과 심판진과의 불협화음이 고조되고있을때 이번에는 관중들과의 싸움으로 뱅쿠버 캐넉스의 선수와 코치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다.

퀘벡시 경찰은 앞으로 2일간 뱅쿠버팀 선수와 코치 해리·닐과 싸움을 일으키었던 관중들이 조사받게 될것이라고 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뱅쿠버와 퀘벡의 대전중 경기종료 30초를 남겨놓고 리드당하던 퀘백의 마리안·스태스니가 골을 성공 3:3타이를 이루는 순간, 뱅쿠버코치 닐이 관중석으로 뛰어올라가 한관객과 펀치를 주고 받았다.

싸움을 일으킨 닐코치는 이 관중이 퀘백팀 벤취뒤에서 뱅쿠버팀 데이브·윌리암스(일명 타이거)의 뒷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선수들은 관중들과 육박전을 벌이다 경찰의 개입으로 중단했다.

거칠기로 이름난 윌리암스는 링크에서 피터·스태스니와 다툰뒤 벤취에 들어가있을때 관중 피에르·처벌이 머리통을 쳤다고 주장했다.

닐코치는 "경찰이 충분히 선수들을 보호하고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것이다." 면서 "관중들은 비싼티켓을 샀으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NHL 플레이·오프 탈락직전의 토론토 메이플립스는 22일밤 메이플립스 가든에서 시카고를 8:5로 물리치고 간신히 연명했다.

그러나 립스는 6 게임을 남기고 노리스·디비죤에서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에게 11점이나 뒤져 두 팀이 앞으로 한게임만 이기거나 혹은 토론토가 한게임을지거나하면 자동탈락된다.

금년도 NHL플레이·오프는 각조4팀씩 조우승자를 가리고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 각 컨퍼런스 승자끼리「스텐리·컵」쟁탈전을 벌인다.

스키협회 발기인 모임

2일 창립총회, 21명 참석

한인스키협회 발기인 모임이 지난19일 토론토의한국관에서 있었다. 스키에 뜻이있는 교민 21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박경택(위원장), 이건영, 송기선 박철민, 하주용씨를 준비위원으로 뽑아 협회정관, 사업계획등 구체적 사항을준비키로 했다.

오는4월2일 클링톤하우스에서 창립총회를 가질예정인 스키협회(가칭)는 더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라고있다.

한 국 일 보
533-2361

제일여행사 확장이전

신용목씨도 합세, 본격채비

2년전 교민여행사중 가장늦게 업계에 뛰어들어고전을 겪던 제일여행사(대표 유지원, 신용목)가 사무실을 블루어 649A번지 2층(한국관과 코리아하우스중간 건너편)으로 확장이전,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있다.

대한항공 토론토 영업소장을 지냈던 유지원씨는지난20일 이전축하파티 에서 "그동안 교민들과 친분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외교적인 면의 경험부족등으로고전했다"면서"이제 새 파트너인 신용목씨를 만나 세일도 점점 확장하고 그동안 비좁았던 사무실을 넓혀 교민들에 좀더 친절한 봉사를 할수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한때 결혼상담소 백과사전세일등으로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 신씨는 주로 외교적인면을 맡게될 것이고 안살림은유씨가 전담할 것이라 한다.

대한항공근무, 항공사 여행사 경력만도 7년이 넘는 유씨는 "친절한 봉사와 신용이 제일여행사의 모토"라고 말했다.

제일여행사는 IATA에이젠트 등록준비도 갖춰 금년부터는 보다 폭넓은 써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 : 535-2377.

◇유지원씨

◇신용목씨

긴장완화조짐보여

중공경제인 소련방문

(모스크바) 중공의 경제전문가 3명이 소련을 비공식 방문함으로써 거의 20여년동안 동결됐던 중-소 대립관계 해결에 한줄기 빛이 던져졌다.

정치관측통은 이같은 움직임을 2공산대국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표시라고 풀이한다.

3명의 중공 경제전문가는 소련 행정관리 및 경제전문가들과 소련의 경영방법을 포함 경제문제에 대한 다각적 토의를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소련수상 니콜라이티코노프가 중-소 대화재개를 위한 조처로 공식초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곳 외교관측통들은 중공의 비공식 소련방문은 로날드-레이건 미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북경측이 최근 불만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태도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판매전망이 중공과 미국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요소라고 밝혔다.

격동기벗어나 도약기

퍼시 미의원, 한국평가

(워싱턴20일=연합)촬스·퍼시 미상원외교위원장은 한국이 과거수년간 격동의 시기를 벗어나 다방면에서 발전을 보일것으로 생각한다고 20일 말했다.

퍼시의원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80년도의 슬럼프에서 회복중이며, 전두환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을 굳혀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정부가 정치자유화 조처를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나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한군원및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을개선시켰으며, 전대통령의 폭넓고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안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칭찬했다.

전체인구 증가불구 농촌 6.1% 감소

(서울20일=연합)한국의 농촌인구는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인구증가에도불구, 작년 한햇동안 6.1%가 감소, 999만8천7백명이 되었다고 20일 농수산부가 밝혔다.

농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농촌에서도시혹은 산업단지로 이주해간 농촌인구는 적어도 64만4천명으로 68년이래 가장높은 인구율을 보였다.

이같은 농촌인구 도시이입현상은 지난10년간 계속되는 전형적 현상으로 작년도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25.8%밖에 되지않았다. 70년도 농촌인구는 49.9%였다.

농수산부 관리는 이같은 농촌인구 감소현상의 주원인은 저조한 생산성과 농부들의 의욕상실로 풀이했다.

모기지 이율 비교

「욱빌」소재 휘스칼·에이젠트 회사가 조사한 18일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최우대고객에게주는 이율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에 대한 이율은 더 높을 수 있다.

Mortgage Lender	6 mths	1 year	2 years	3 years
Bayshore Tr.	—	—	—	—
Cabot Tr.	—	19	—	19½
Canada Tr	18¼op**	r/o	—	r/o
Canada Perm.	—	18½	19½	—
Central Tr.	—	18½	—	19¼
Community	20op/19½	19¾op/19¼	—	—
Credit Foncier	—	18½	19	19¼
Crown	18¾	18¾	19	19¼
Fidelity	—	18¾	19	19¼
Financial	19¼op	19¼op	—	—
Guardian	17½	19	—	19½
Guaranty	18¾	18½	—	—
Monarch	19op	19¼op	—	—
Montreal Tr.	19¾	18¾	—	—
Morgan	—	18¾	19½	19½
National Tr.	—	19¼op/18¼	—	—
Premier	—	19¼	19	19
Seel Mtge	19	19	—	—
Shoppers Mtge	—	19	19	19
Sterling	—	19	—	—
Royal Tr.	—	18¾**	19¾**	19¾**
Vanguard	—	19	—	—
Victoria & Grey	19½op	18½	r/o	r/o
Cdn. Imperial	—	17¾	18¾	19
Bank of Montreal	—	19¼op/18¼	18¾	19
National Bank	—	19¼op/18¼	18¾	19¼
Bank of N.S.	—	18¼	18¾	19¼
Royal Bank	—	18¼	—	19¼
Toronto-Domin.	—	18½	19	19½
Dominion Life	—	18½	—	—
London Life	—	18½	—	18¾
Mutual Life	—	18¼	—	18½

ror=개별 질문에만 응함 op=오픈 r/o=갱신자에 한함 ★★=기존 고객에 한함 r/a=해당안됨

不況모르고 흥청대는

헐리웃 高級食堂

풀코스 들려면 頭當150弗

食前 입맛돋는間食 40弗·냉수도3弗50센트

1週前 예약않곤 자리못잡아…배우들 단골

불경기가 아무리 심하고 실업자가 줄을서도 헐리웃의 고급레스트랑만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주위에는 비싼 음식값에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지불하는 능력있는 스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스타들이 순례하는 호화판 식당들의 음식가격은 우선「오르되브르」(식사전 입맛을 돋구기 위해 먹는 간식)만해도 40달러이다. 정식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6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 샴페인 한병을 터뜨리면 2백달러, 가볍게 꼬냑한잔만 들이켜도 35달러이다. 풀코스를 거치고 나며 일인당 1백50달러 4인일 경우 7~8백달러는 거뜬히 든다.

프랑스 요리전문 L'Orangerie는 항상 초만원이다.

이곳의 특미인 철갑상어알을 달걀로 싼 오르되브르는 1인당 15달러이며, 노르웨이산 훈연연어요리는 15달러, 철갑상어요리는 1온스당 40달러나 한다.

또한 이 식당의 일품요리인 송아지요리는 26달러, 오리요리는 21달러이며 디저트만도 6달러를 받는다.

역시 프랑스식 식당 L'Oscoffier에서는 가재요리는 24달러부터 시작되며 양고기는 18달러 포도주 한병에 2백달러를 받는다. 이곳도 항상 초만원을 이룬다고.

1894년 버마에 있던 영국장교식당을 본따 만든 Rangoon Racquet Club에서는 칠리 한접시에 15달러이며, 일품디저트인 딸기 쵸콜레트는 8달러나 한다. 돔 페리뇽 샴페인 한번 터뜨리는데 1백 10달러.

지난주에는 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탤론, 헨리 윙클러, 록 허드슨 토니 커티스등이 다녀갔다고 매니저는 자랑이 대단하다.

역시 프랑스요리전문인 L'Ormitage에서의 1인당 저녁식사비는 75달러, 샐러드만도 16달러이며 수프는 6달러50센트, 냉수는 미네랄음료수라고 특별히 3달러50센트를 받는다.

▲고급식당은 불황을 모른다—웨이터들의 옷차림도 격조가 있어 보이는 고급식당에선 포도주 한병에 2백불이 넘는곳도 있다.

선셋블러버드에 위치한 Le Dome레스트랑의 샐러드도 16달러, 특이13세 꼬냑한잔에 35달러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곳은 이탈리아전문요리집인 Dan Tana's. 이곳은 입장료만도 9달러75센트이며 치즈케익은 3달러이다.

그래도 이곳에는 일주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제5계절

실, 야화전당

(失, 野話殿堂)

이 해 원

(학생 토론토 공대 3년)

◇이해원씨

대학교라고하면 커다란 교문에 담이처져있고, 여기저기 벤치나 잔디밭에 둘러앉아 고우영「삼국지」만화가 과연 문학작품이 될 수 있는지에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수있는 우리만의 아늑한 장소로 생각하였다.

거기에는 꿈과 낭만이있고, 그녀와 손잡고 걸을수 있는 오솔길도 있으며, 가끔은 나무그늘에 꽃잎과나엽이 이쁘게 끼워져있는시집을 읽고있는 센티멘탈한 여인을 만날수 있었다.

하지만 꿈과 낭만속에날개를 편다는 아름다운 환상따위는 이미 뇌리에서사라져 버리고, 대신 멧트럭은 될것같은 숙제와 성적에 짓눌려 노이로제걸린이곳 학생이된 후, 이곳은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동떨어진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다.

건물은 우중충하며 시카고 뒷골목같고, 어디선가갱단의 기관단총이 불을뿜을 것같은 착각에 가끔 사로잡혔으며, 150명정도가 꽉꽉 차여진 강의실은 종로통에서 한번 수강한적 있던 저자직강 학원강의를 연상시켜 조금 실망하였다.

무엇보다도 무척 실망시킨것은 학교앞에 다방과, 그리고 몇잔의 소주를 걸칠 수 있는 뒤깁집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수있는 대화의 세계를 상실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어쩌면 공부에대한 Pressure와 이런여건 때문에 풍부한 서적과 실험기구로 다량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있는 반면에 많은것을잃고있은것 같다. 어느「미팅」에서 자기이름을 말하며얼굴을 살짝 붉히는 그녀의 덧니에서 느끼는 매력!「5월의 대학축제」에서 그녀와같이 사먹은「사랑의 솜사탕」의 달콤한 맛등….

이곳 학생들은 전문지식 습득에만 여념이없다. 하지만 대학교가 엘리트의식에만 사로잡혀 공부에만 충실하고 전념하는 공부벌레 산출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너무 독단적인 편견일까?

가끔은 친우들과 폭넓은, 대화가 몇개의 공식보다중요하다고 생각할때가 있다. 물론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머리에쥐가날정도로 너무 많은양의 공부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우리에게 생활의멋을배울수있는 여유가 아쉬운것이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M. Arch. O.A.A.

개 업 안 내

지난10년간 토론토에서 캐네디안의 건축설계 사무실에 근무하여온 본인은 이번에 온타리오주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아래 장소에 다음에 적는 사람들과 협동의 관계를맺고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 D. Ferguson - Mech. Engineer
- D. Naylor - Mech. Engineer
- S. Simek - Struct. Engineer
- C. Clark - Architect

약 력

- 1964 - 경기 고등학교 졸업
- 1968 -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 1971 -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
- 1972 ~ 1982 토론토에서 캐네디안 건축설계사무실 근무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484-6110 (B), 492-7472(R)

점심 특별 스페샬 ❋❋❋

한국관

기 간 : 1982년4월15일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5.00 : 유부덮밥, 생선초밥, 회덮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대표 : 나 옥 녀

• 영업시간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창립 총회 공고

스키협회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뜻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4월2일(금) 하오7시
장 소 : 클링톤 하우스

스키협회 준비위원장
박 경 택

73%가 强姦경험

桑港 10代창녀實態 충격적인 報告書

3명중 2명은 白人중산층가정出身 가출소녀
대부분10代때 性的학대 被害者들로 밝혀져
할머니·어머니代이은「창녀3代」이색기록도

10대 어린 창녀들의 실태를 파헤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UC버클리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야라 파인스양은 10대 창녀들로 메워진 샌프란시스코의 텔란시 스트리트에서 2백명의 어린 창녀들과 직접 면담해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완성, 전국정신건강연구소에 제출했다.

이들이 창녀촌에 빠지게 된 원인을 보면 놀랍게도 3명중의 2명은 백인중산층 가정출신으로 이미 10세미만때 집안에서 성적인 학대를 받아,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집을 뛰쳐나온 가출소녀들 이었으며, 나머지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할수없이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는것.

창녀들과 면담을 통해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 파인스는 이것이 창녀들의 생태를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 창녀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직업을 택하게 된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 낸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생활상을 보면 2백명중 불과 10명, 즉 5%만이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스스로 원해서 이직업을 택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단 창녀촌에 들어선후에도 이들의 시련은 그치지 않는다.

면담결과 놀랍게도 73%가 강간경험을 갖고있었다. 주로 주위의 강력범, 깡패들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데 후환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않고 있다.

이렇듯 사회의 밑바닥에 살고있는 이들은 사회란 원래 불안하고, 포악한것으로 생각, 아예 사회에 대한 반감조차 갖고 있지 않다.

면담에서 만난 한 창녀는 자신의 과거를 처음 밝힌다며, 얘기상대가 있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소녀는 8살때 그의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그후 연달아 아버지 형제, 오빠들, 친구들에게 강간을 당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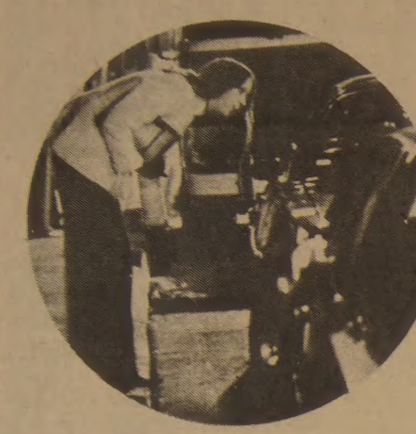
그후 사람을 기피하자 소녀의 엄마는 정신병원에 보냈으며 급기야는 소녀를 내팽개쳐, 둔채 가족이 모두 그 주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경우이지만, 모든 가출소녀들은 경찰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경찰이 그 지긋지긋한 집에 도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또 매춘부 할머니와 엄마를 둔 한 소녀는 생계유지를 위해 창녀인 언니로부터 이직업을 안내받아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텔란시 스트리트재단은 어린소녀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신적, 심리학적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이들에게 공동수용소를 마련,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뉴멕시코 산타페시에 있는 재활원에는 어린창녀들이 모여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미국의 홍접인생 창녀-이들은 73%가 강간경험을 갖고 있다고한다.

減刑조건 性관계한 日판사에 懲役1년

〈동경 .〉형을 가볍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여성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일본 판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 되었다.

야수까와 데루오 판사(48)는 지난 80년 7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3살난 여인과 3일밤을 같이 보내고는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었다.

◆TV시리즈 출연하는 리타·모레노-오스카상, 토니상, 그래미상,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여성 리타·모레노가 25일 부터 방영될 TV시리즈「9시에서 5시까지」에 출연하게 된다. 이 시리즈는 같은 제목의 영화를 TV시리즈화 한것인데, 제인·폰다가 프로듀서로 일하게 된다.

〈캐나다소설〉 (139)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천재홍 옮김

번쩍이는 강물의 수면을 갈라놓듯이 호수의 수면위를 스쳐지나 갔읍니다. 툴레말리곽은 갈비뼈 가 산같이 쌓여있는 호수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우리 민족에게 알려져 내려왔읍니다. 이런 이름은 언제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오랫동안 내려왔는데사람들은 이 호수의연안에서 짐승의뼈를 발견 했답니다. 이 뼈들은 어찌나 큰지 아무도 두손으로 이들 뼈하나를 들기가 힘들었답니다.

호수중에서 가장큰 이호수는 그이름보다도 더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과거에 호수가운데로 용감하게 답사를 나갔다

그 깊은 밑바닥에 살던 거대한 짐승때문에 땅을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대한 많은 이야기가있기 때문이지요.

헤카우와 엘라이투트나가 젊었을땐 툴레말리곽의 연안가까이 여행하는것 이 관례였는데 몇세대를 걸쳐 아무도 넓은 이호수를 건너가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옛날 이야기가 단지 어린 아이들한테만 들려주는 이야기로 생각되었읍니다.

나의 부친과 헤카우 그리고 카우트나는 동쪽연안을따라 내려가는 동안 퍽 재미있게 지냈읍니다. 3일째되는날 전혀 얼음이없는 깊은 만까지와서 툴레말리곽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만을 건너가기로 작정했지요.

그날은 청명한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맑고 차가운 호수물은 눈처럼 하얗게되 색이 되었더랍니다.

소낙비가 올것같은 구름이 머리위를 덮고 있었지만이들은 노길이의 열개정도의 깊이속을 환히 들여다볼수 있도록 푸른물은 맑게 번쩍거렸지요.

헤카우가 앞장을서서 갔고 세사람은 멀리 남쪽에 있는 산밑으로 빨리가고싶어서 힘을다하여 노를 저었읍니다. 엘라이투트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아프면 노를 공중에 쳐들어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방울로 목을 축였읍니다.

노를 다시 물속에넣어노끝을 바라보았을때 그는갑자기 무서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읍니다. 왜냐하면 그의 카약밑으로 무지무지하게 큰 형체가산같은 그림자를 끌면서 움직이는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읍니다.

다른 두사람은 엘라이투트나의 비명소리를듣고 그가 소리친 말이 무슨뜻인지 알아들으려고 잠시 멈췄읍니다.

"앙케오아!"이렇게 그는 소리질렀지요.

세사람은 동시에 노를들어 가까운 연안으로 카약을 돌려 카약이 잔잔한 물위를 거의 닿지않을만큼잽싸게 저어갔읍니다.그러나 그들이 겨우 몇십번 노를 저어갔을때 헤카우와 카후트나사이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센물결이 일어나면서 카후트나의 카약은 옆으로기우뚱했고 그는균형을잃고 말았읍니다. 전력을 다해 긴 노를 움직여 보았으나 카약은 옆으로 누우면서 그는 호수물에 내던져 졌지요.

그때 폭포의 소용돌이물에서 나는것같은 큰 소리속에서도 두사람은 카후트나의 비명소리를듣고 그를 구하려고 돌아섰읍니다.그는 매우 좋은사람 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서그를향해 노한번 저어볼수가 없었읍니다. 그들이 돌아섰을때 큰 물거품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퍼렇고늘씬하게 긴 동물이 솟아올라 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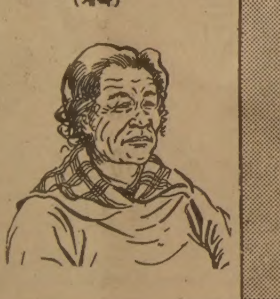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수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지만나의 부친은 그괴물은 10개의 카약길이이고 폭은 5개의 카약길이보다 더 넓었다고 말했읍니다. 이괴물은 한쪽끝에 텐트만큼큰 꼬리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읍니다.내 부친과 헤카우는 이 괴물의 머리를 보지 못했읍니다.

앙게오아라고 불리는 이것이 솟아오를때 호수밑에서 올라온 이 괴물을 화살이나 창으로는 어찌해볼도리가 없는줄을 알고 카후트나를 버리고 둘은 카약을 다시돌려 호숫가로 도망쳤읍니다.

헤카우와 엘라이투트나는 그들의 카약이 호숫가의 바위에 부딪쳐 깨질때까지 멈추지않고 노를 저었읍니다.

카약을씌운 얇은 가죽이 바위에 찢기고 찢어져버렸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너무나 피곤하여 일어설수가 없었고,배에서 기어나와 사지에 힘이 모두 빠져버려움직일수 없었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햇볕속에 누워있었읍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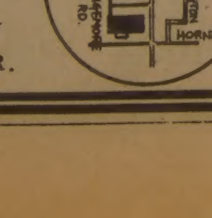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

Mar.24-Apr.10

Delsey toilet paper	24x2's	$17.29
Palmolive liq. cleaner	24x500ml.	26.39
Purina dog chow	10x2kg.	20.25
Allen's apple juice	12x48oz.	14.39
Pamper's toddler	12x24's	56.39
McCormick's peg top candy	12xper(box)	7.9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춘계 부흥 성회

새봄을 맞이하여 저희 런던한인 장로교회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도시 보스톤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고 계신 최양선 목사님을 모시고 기나긴 동면에서 찬란한 새봄에 아침을 맞이하고저 귀한 성회를준비하였읍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1982년 4월1일~4일
집회안내 : 저녁집회—목, 금, 토 7시30분
새벽기도—토요일 아침6시
주일예배—낮 11시, 오후 2시
주 제 : 복음으로 열매맺는 교회
강 사 : 최 양 선 목사
(현재 보스톤 장로교회시무및 미주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특별공고 : 주일오전 예배중에 이정순 권사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장 소 : 530 TOPPING LANE, LONDON 런던한인 장로교회당
문의및 연락 : 신 용 규 목사교회 : (519)473-5257
사택 : (519)686-0224

런던한인교회 당회

"對外문제엔 團合과시해야"

全대통령 民正議員연수회 참석 國家次元서 他黨과 협조를

"舊態답습하면 生存도 위협 모든國民 통일自信感 갖게"

實利추구 추세: 共産國과도 對話가능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외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힘을 합쳐 主人의식을갖고 主體性을 살려야 한다』이라고 말하고 『국회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이 단결해야하고 집안문제는 차후에 논의해도 좋을것』이라고 강조했다.

民正黨총재인 全대통령은 이날 서울 비쌍洞의 民正黨 중앙정치 연수원에서 열린 民正黨의원연수 수료식에 참석, 훈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民正黨은 他黨의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통해 국가 차원에서 화합할수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責任정신을 기본으로 삼아 私心없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풍토를 이룩해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의원직을 생계수단으로 삼으려는것은 舊시대의 썩어빠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금년은 국방·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사회적인 안정이 요망된다』고 말하고 통일방안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도록 홍보에 주력하며 北韓도 통일방안을 수락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왔당기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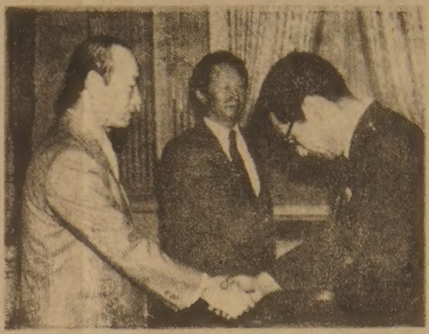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또 『국제정세가 국가이익을 앞세우는 상황으로 변하고있는만큼 공산주의 국가와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며 이는 北韓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될수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1·22」민주통일방안에 대해 北韓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동맹국가 세계 94개국 이상이 지지하고있으며 북한당국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통일방안을 수락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全대통령은 『86년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는 우리역사상 快擧요, 轉換기』라고 강조, 『이를 계기로 우리국민이 선진국국민에 뒤지지않는 1등국민이 되도록 의식구조개혁, 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3大否定심리추방운동에 대해 『부정부패가 상존하는 사회, 무사안일이 상존하는 국가는 결코 부강할수도 생존할수도 없다』고 강조하고 『82년도를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부조리없는 사회를 정착시키는 해가 되기위해 정부는 모든 희생을 감수할 각오』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제5공화국과 民正黨이 舊態를 답습하게 되면 정치는 차치하고 나라가 망하게될것』이라고 말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과오를 범하지 말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제2의 경제도약을 시작해야겠다』고 밝히고 『금년에는 물가를잡고 안정된가운데 제고 착실하게 계획대로 모든것이 성장되고 추진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교도소장및 소년원장들을 접견, 악수를 나누고 있는 全斗煥 대통령.

전국 矯導所長등 접견·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하오 서울구치소의 李敏世소장, 서울소년원의 金鍾源원장 등 전국교도소장및 소년원장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격려했다.

이자리에는 李範烈법무장관등이 배석했다.

유네스코總長 叔勳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아마두·마타르·음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修交勳章 光化章을 수여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부인인 레이몽드·음보여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음보 사무총장내외에게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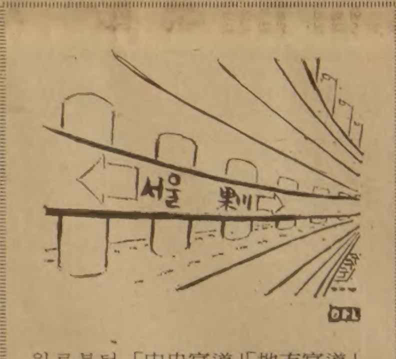
이날 오찬에는 盧信永외무, 李奎浩문교부장관과 朴奉植유네스코 韓國委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民正의원 硏修끝내 3개項결의문 채택

民正黨소속의원들은 18일 司栗洞 중앙정치연수원에서 2박3일간의 의원연수를 끝낸후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데 앞장설것을 다짐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民正黨은 이 결의문에서 ▲청렴봉사 희생의 윤리를 가다듬어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에 一心同體가 되고 ▲국리민복 意思실현에 國益옹호의 굳건한 기반이 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국력신장의 원동력이될 민족화합 국민단결의 향도가 될것을 다짐했다.

社會漫評



위로부터 「中央官道」「地方官道」「産業道」「一般道」「不動産業者道」…

經協 내달초總額제시

스즈끼 「積算式」주장 바꿔 政治決斷키로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 日本정부는 17일 현안문제인 60억달러의 對韓경제협력문제에대해 3월까지 실무적인 검토를 끝내고 4월초에 日本측이 내놓을수있는 경제협력의 총액을 제시하여 5월3일~5일중 사쿠라우치(櫻內義雄)外相을 한국에 보내 최종 타결한다는 일정을 굳혔다.

日本측은 對韓경제협력을 매년마다 검토하여 결정하는 소위 「積算式」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원칙을 바꾸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5년동안에 제공할수있는 총액을 제시해 정치적 결단에의해 제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은 이날 아스이·켄(安川…)韓日의원연맹회장이 『對韓경제협력에는 5월 연휴(5월3일 헌법기념일,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수상의 결단으로 타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지금 실무자급에서 검토중이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니나 나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外務省을비롯 大藏·通産·경제기획청등 4개관련부처의 실무자들이 한국이 내놓은 60억달러의 경제협력案에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끝냈으며 늦은 外相을비롯한 관계부처장관들의 모임을 갖고 총액결정에대한 협의를 가질예정이다.

한국측은 지하철등 11개사업과관련 엔차관 35억달러, 현물차관 25억달러 도합60억달러의 정부개발차관을 요청하고있으나 일본측은 이자율을 포함시키려 하고있다. 이밖에 순수정부개발차관이외에 수출입은행등 공공차관을 포함시키려 하고있다.

蘇 極東겨냥SS20 蒙古북쪽 國境配置

필리핀도 射程

【워싱턴17日聯合】 소련은 SS20 전략핵미사일을 몽고 북쪽의 국경지역에 배치했다고 로버트·롱 태평양지구 미군총사령관이 16일 하원의 한 위원회에서 증언했다.

롱사령관은 극동을 겨냥하고있는 소련의 SS20은 일본과 필리핀까지도 그 사정권내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소련의 미사일 가운데 약 3분의 1이 현재 극동에 배치돼있다고 덧붙였다.

"대학教鍊 志願制로 自律化"

民正黨 추진 3學年까지…軍服務 1년단축

理念서클 研究허용…動態파악 중단

民正黨은 대학교이념서클의 연구활동을 허용하고 현재 의무제로돼있는 敎鍊을 지원제로 바꾸는등 학원의 自律化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民正黨이 검토하고 있는 「통일승계세대육성방안」에 의하면 통일에 대비한 새세대에 自律性을 부여하기 위해 학원의 자유스런분위기를 보장하고 정부의 이데올로기 관계서적 市販허용조치와 아울러 이데올로기연구를 개방하는 한편 대학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다는 것이다.

民正黨은 이와아울러 현재 대학1~2학년생들이 의무적으로 받고있는 교련을 지원제로 바꾸어 3학년까지받도록 연장하는반면 병역減免혜택을 현재의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특히 정부와 대학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신뢰저해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판단아래 동태파악등 대학생들의 불만요인을 과감히 해소시키는 한편 지금까지 단속만해왔던 대학생들의 음성적인 社會主義 이념연구를 양성화시켜 지도교수밑에서 연구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비판력을 키우도록 한다는것이다.

또 학원사태등 관련문제학생들의 처벌문제도 당국의지시에의한 종래의 방식을 지양, 각학교에 맡겨지도교수의 의견에따라처리하도록했다.

民正黨의 한간부는 17일 『대학생들에게 국가발전전망을 인식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主人의식을 갖게하기위해서는 지금까지의 他律的인 관리체제를 과감히 탈피할필요가 있다』면서 『民正黨은 학원문제는 대학스스로가 구심점을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원문제를 전면 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간부는 『이를위해 교수들의 자질향상과함께 교수들이 대폭재량권을 갖는 敎權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이라고설명했다.

엘살바도르 警備艇 니카라과船舶 砲擊

武器루트 衝突은 처음

니카라과國防省성명…두곳서 船員1명重傷

【마나과(니카라과)18日聯】 니카라과정부는 18일 엘살바도르의 해안경비정이 태평양해역 니카라과領海에서 17일 니카라과 소유선박 1척에 포격을 가해왔다고 비난했다.

엘살바도르의 좌익게릴라에 무기가 밀반입되고있는 수송루트라고 미국이 밝히고있는 해역에서 양국이 직접충돌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카라과국방성의 성명은 엘살바도르해안경비정의 발포로 선원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엘살바도르 함정은 또 이날 같은 시각에 폰세카만에서도 니카라과선박에 포격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니카라과국방성은 이번에 일어난 충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엘살바도르가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가 직접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태평양연안 해역에서 지난 3월동안에 벌어진 해상충돌로는 2번째다. 지난15일 온두라스의 해안경비정은 니카라과 소속 어선1척과 선원2명을 나포했는데 니카라과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不可侵」용의 美, 니카라과에 協定提議

【워싱턴18日聯】 토머스·엔더스 미국무성차관보는 18일 미국은 니카라과와 일종의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엔더스차관보는 미상원외교활동소위에서 그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니카라과좌익정부가 먼저 엘살바도르 게릴라들에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중미여러나라들과 함께 역내군비경쟁을 종식하는데 참여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엘살바도르 사태에 대한 니카라과의 개입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니카라과정부가 이를공식으로 시인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엘살바도르무기…

◇絕頂앞둔 팀스피리트 「팀스피리트82」훈련에 참가한 美軍의 RF4C팬텀정찰기(上)와 F15이글전투기가 18일 日本 나하의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점검을 받고있다. 【나하18日AP聯】

崔重華 北韓에체류 加경찰, 在獨說의심

【터론토17日=聯】 全斗煥대통령 암살음모사건을 수사중인 캐나다경찰당국은 이 사건의 주요 혐의자중의 하나로 수배되고 있는 崔重華가 최근 베를린 소인이 찍힌 편지를 2개의 캐나다신문에 보내온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토·스타紙와 터론토·선지등 2개신문은 17일자 기사에서 제임스·崔의 사인과 베를린소인이 찍힌 편지를 16일자로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편지가 언제 캐나다내에서 발송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地平線

같은 범죄라도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다. 그 경중은 범죄마다 규정된 형벌의 경중으로 가늠해 볼수가 있다. 형법제50조의 「刑의 輕重」이 그 기준이다. 그에 따르면 형벌의 종류는 다음 9가지. 경중에 따른 순위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된다.

▼범죄에 경중이 있으므로, 수사에도 경중이 있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사건에는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처가 다른것은 너무당연하다. 어떤 사건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어떤때는전담반을 편성하며, 어떤 사건은 사건발생 보고서 한장, 수배서 한장으로 그칠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처지에서 보는 사건의 경중은, 법에 정한 刑의 輕重처럼 일목요연할 수는 없다.

▼얼핏생각해도, 사건의 크기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자라면, 단순 절도라고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피해자라면, 같은 강도사건이라도 국회에서까지 말썽이난다. 사건의 크기는 신문에도 달렸다. 수사관이 보기에, 신문에 크게난 사건은 그만큼 크다. 그기사가 상급감독기관의 타성이 …까.

▼물론 경찰 수사가 이런 것만으로 좌우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모자라는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하고, 형사정책적인 배려아래 수사태세를 결정한다.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신문은 수사본부조차 없었던 어린이 유괴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도하고 있다. 실종54일만에 4대독자의 시체를 찾은 어머니는 『이 못난 엄마…』라며 가슴을 치고 있다(18일字본보11면). 힘이 없어 경찰수사력을 동원할수 없었다는 한탄일 것이다.

▼경찰로서는 다행이랄지 모르겠으나, 이사건은 「유괴·살해」아닌 「실족·익사」로 대강 결론이 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와서의 결론이지, 어린이가 없어진 몇달사이, 70여통의 협박전화가 걸려오던 상황에서단정할수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때 경찰이 좀더 수사에 성의를 보였다면, 집근처 냇속에서 4대독자의 시체라도찾을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랬더라면, 지금와서 「소홀捜査」의 원망, 수사결론에대한 의문이 남을 까닭은 없다. 사건의 경중을 옳게 판단하는 자세가, 수사公信力의 기본임을 말하고싶은것이다.

內外記者살해 警告 엘살바도르 右翼

【산살바도르18日聯】 엘살바도르의 우익 반공주의자동맹인 「살인 특공대」는 17일 성명을 발표, 엘살바도르 좌익 공범자로 그들이 판단하는 35명의 외국및 국내기자들을 살해할것이라고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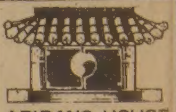
對美협상 拒否 니카라과內相

【마나과18日AP聯】 토머스·보르헤 니카라과내상은 17일 니카라과가 미국으로부터 위협받고있는 이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위한 협상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미행정부는 지금까지 멕시코정부가 제의한 미·니카라과 공식협상제안에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보류해왔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봄철 유화특별 세일〉

단 한번의 절호의 찬스!

up to 75% off

기간 : 3월 26(금), 27일(토) (2일간)

◎대형SIZE 유화 $29(living room 해당)
◎많은 동양화도 준비(약 200점)
◎각종액자 구비

Kim's Art Gallery
1286 Weston Rd. (웨스톤×에그린톤)
(B) 243-0233 (R) 651-2261 김 석 환

"蘇, 中美에 核배치可能"

美평론가들 「브레즈네프 發言」 분석

쿠바·니카라과등 有力

"對美공격意圖 심각한事態 초래"

【워싱턴17日AP=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미국을 강타할수 있는 핵미사일을 쿠바나 니카라과에 배치할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16일밤 미국의 시사평론가들이 추측했다.

시사평론가들은 브레즈네프가 16일 SS20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동결을 발표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당초 예정대로 신형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를 강행할 경우 『소련은 유사한 거리에서 미국영토를 강타할수있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수없을것』이라고 위협한것과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

한편 美국무성의 한관리는 『브레즈네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없다』고 말했으나 미국이 브레즈네프위협 발언에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이 관리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같은조치는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당시 美·蘇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62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니카라과에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물음에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되리라고 말하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 대답했다.

◇시나이에 到着한 美공수부대　美제82 공수대대소속의 공수부대원들이 中東평화유지군에 합류하기위해 시나이반도에 도착, 공수대대소속헌병들이 지켜보는가운데 수송기에서 내리고있다. 【샤름엘셰이크(이스라엘점령 시나이半島) 17日AP特電=聯合】

美軍 4백50명 시나이半島에

平和軍 1陣으로

【샤름엘셰이크(시나이半島)17日AP=聯合】 시나이반도 이집트 이스라엘국경선에 배치되어 중동평화를 감시할 다국적중동평화유지군의 제1진인 4백50명의 미군이 17일 이스라엘의 엘알항공사 소속 보잉747제트기편으로 시나이반도남단의 샤름엘셰이크에 도착했다.

시나이 반도평화유지군은 10개국의 2천5백명내지 3천명으로 구성되어 3월말까지 배치완료되며 오는4월25일 이스라엘의 최종철수가 끝난후 폭50㎞ 길이 2백30㎞의 이집트 이스라엘국경을 감시한다.

이날 도착한 제1진 미군은 美제82공수사단의 505대대소속이며 미군제2진이 17일하오에, 피지軍4백50명이 18일, 콜롬비아軍및 우루과이軍3백60명과 미군조종사70명이 19일각각도착한다.

콜롬비아號 3차 22일上午 장도에

【로스앤젤레스17日=聯合】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오는 22일상오7시(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카내베랄에서 2명의 우주인과 2만파운드의 화물을싣고 3차 주비행에 나선다고 미연방항공우주국(NASA) 관리들이 17일 말했다.

카리브海 지역국에 레이건, 經援案제출

議會에

【워싱턴17日聯合=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17일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미와 카리브해지역국가들이 당면한 폭력적인 정부전복위험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위한 경제원조및 무역거래일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2월24일 OAS(미주기구) 회의연설을 통해 밝힌 카리브해지원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이날 3억5천만달러의 경제원조및 카리브해지역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일괄안을 서명하여 의회에 보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와함께 의회에 보낸 특별메시지에서 엘살바도르가 극심한 경제난국에 처해있어 의회가 경제원조안을 승인하는대로 1억2천8백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밖의 중미여러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도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波蘭 戒, 言論統制시사

【바르샤바17日AP=聯合】 폴란드계엄정부는 17일 일부언론인들의 親자유노조적인 공산당 언론노조결성을 관영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명백한 언론규제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환경保護家의 祈禱　새끼 물개 시체앞에 꿇어앉은 환경보호가。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한단원이 캐나다근해 로렌스灣의 빙판을 지나다 사냥꾼에 잡혀 뼈만남은 새끼물개를 발견, 무릎을꿇고 기도를 올리고있다.

메아리

공산주의 소련의正體가 무엇인가를 레닌은 한마디로 알려주었다。「아주 뻔뻔스러워야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것。 혁명으로 權座에올라 1922년 당시 외상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이 뻔뻔한 약속은 그후 거침없이 침략의 포화를 뿜어냈다。 소련은 우선 우호맹방부터 용서없는 침공을 감행했다。 히틀러의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1939년에 맺었다。 그뒤 무력으로 폴란드동부를 치고 들어갔다。

발틱3국과는우호조약을 체결한뒤 합병해버렸다。 핀란드도 예외는 아닐뻔 했다。그리고 세계2차대전이끝날 무렵 不侵조약을맺었던 일본에다 느닷없이 총구를 내밀었다。

사회주의 국가마저 마음에 안들면 무슨 희생이 따르더라도 짓밟아 버린다。 체코와 캄보디아의 경우가 그렇고 아프간에선 지금까지 수렁속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간에 親蘇정권이 들어선것은 78년의 일이다。중립정권을 쿠데타로 뒤집고 타라키가 집권케했다。 그는 소련과 「20년 평화우호조약」을 성립시켰다。 소련의 南下정책은 그도 모자라 곧 수

공산주의자인 아민을 내세웠다。

79년말 아프간內政은 무서운 불안에 싸였다。 反蘇폭동을 겁낸 소련은 선제공격을 감행했고 아민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아세워 처형했다。

아프간국민의對蘇항쟁은 이때부터시작되었다。 지금 아프간은 9만명의 소련점령군이 점령하고 있다。 자유전사들은 거의 맨주먹으로 이들을 괴롭힌다。 전쟁의 참화는 2백만명의 피난민을 북부파키스탄으로 몰아냈다。 아프간국민 5명중 1명꼴이 난민이라고한다。

이 세기의참상이 忘却에 묻혀간다。 신문과 텔리비전카메라의 접근을 소련이 철저히 봉쇄하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여론에 시달렸지만 소련은 아랑곳 않는다。

미국은 오는 21일을 「아프간의날」로 선포했다。 이아이디어는 유럽에서 먼저나왔다。 고통받는 아프간국민에 세계의 관심을 맞추고 지원을 과시하자는 것이다。 이행사를 주재하는 로저스 전미국무장관은 시위와 법석은 떨지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냉정하고 사려깊은 「사실의 인식」을 강조하며 소련의 잔학성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힘의 정치의 냉혹함이다。

아프간의 날

카리브海 「政治波高」

一 昏迷속 中南美사태… 어디까지 번지려나

〈下〉

잃어버린 땅-니카라과

미국방성상황실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뛰어 나왔다. 美고공정찰기와 첩보위성이 탐지한 니카라과군사현황에 대한 항공사진36장이 비쳐졌다.

존·휴즈美국방정보국(DIA)부국장은 브레진스키前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등 25명의 군사전문가들 앞에서 니카라과의 군사현황에 관해 지난주 브리핑했다.

휴즈부국장은 니카라과산디니스타정권이 지난2년간 새로 건설한 36개의 군사기지사진을 보여주면서 니카라과에 소련과 쿠바가 깊게 개입해 있음을 역설해 나갔다.

산디니스타정권은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 현재 7만명에 달하는 중미최대의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T54·T55형 소련탱크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확장공사중인 3개의 비행장사진을 가리키며 올해안으로 40명의 니카라과조종사들이 불가리아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MIG21機편대가 니카라과땅에 내려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20년전 쿠바에 소련미사일이 배치되었을 때와 똑같은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휴즈부국장은 니카라과를 「제2의 쿠바」로 결론지으면서 레이건행정부의 對중미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혁명수출기지로서의 쿠바가 되어버린 니카라과, 「제2의 니카라과」가될 위기에 처해있는 엘살바도르에대해 취하는 미국의 처방은 모호한 일면이있다.

니카라과는 최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특공대가 침투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사실 미행정부는 암암리에 약 1천명으로 구성된 反政게릴라들의 특공작전을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니카라과와 정치적인 화해를 모색키위해 지난해 모두 6번이나 엔더스국무차관을 마나과로보내 협상을 하기도했다.

또 최근에는 민간베이스의 경제지원을 허용했다.

이같은 미행정부의 니카라과에 대한 양면정책을놓고 일부에서는 니카라과를 「잃어버린 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그러나 니카라과의 급속한 군사력증강과 소련·쿠바에로의 접근은 중남미전체의 정치적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잃어버린 땅」으로만 방치할수도 없는형편이다.

니카라과의 현군사력은 자체방위수준을 넘어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접국인 온두라스의 1만명정도의 미약한 군사력은 상대가 되질 못한다.

니카라과는 현수준으로도 정규군이 전혀없는 코스타리카는물론 1만4천명의 병력을 가진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1만7천)를 단독으로 침략할수도 있는 군사력을 갖고있다.

그러나 OAS(미주기구)、리오협정등상호방위조약이맺어져있어 인접국가를 침공, 범라틴아메리카軍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모험을 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左傾후 中美최대 軍事國

美, 和解모색… 경제援助도

딜레머에 빠져있는 레이건행정부는 최근 포르티요멕시코대통령이 제의한 中美평화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소련및 쿠바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中美문제에 관해 프랑스、서독등이 이해를 달리하고 있을뿐아니라 中美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있는 멕시코도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필요悪」으로서 협상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지금까지 엘살바도르사태에 대한 협상은 좌익게릴라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해 왔었다. 17일 반군측은 미국에 대해 중재 또는베트남식개입을 택하라는 오만한주장까지 했다.

미국도 현 사태를 협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 위험을 느끼면서도 끌려들어가고 있는것같은 느낌이다.

中美지역에서 미국이익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국경을 맞대고있으며 산유국이기도한 멕시코와 운하를 끼고있는 파나마다. 그외의 나라들은 공산주의의 포위에 대항하는 미국의지의 상징으로 1차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

미국방성과 CIA(중앙정보국)도미국과 우방에있어서의 中美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기위해 일련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보고서에서 조차도 『中美는 전략적 특혜(PRIZE)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있는 것이다.

이보고서는 그러나 멕시코와 파나마사이에 쐐기를 박는 정치소용돌이는 결국 南과 北으로 확산될것이라는데는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17일 카리브해 지역국가들의 정부전복위험과 경제위기를 해소키위해 3억5천만달러의 경제원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오는10월부터 시작되는 83회계연도에 6억4천만달러를 추가원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미의 정치혼란은 군사력만으로 해결할수없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있는 것이다.

【崔海雲기자】

◇비밀리에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진지를 방문중인 엘살바도르의 게릴라지도자 카예타노·카르피오(화살표)가 南部 레바논의 뷰포트城밖에서 팔레스타인戰士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베이루트17日UPI特約=聯合】

"美의仲裁 수락用意"

엘살바도르叛軍지도자 記者會見

【베이루트(레바논)17日UPI=聯合】 엘살바도르 좌익반군의 지도자인 카예타노·카르피오는 엘살바도르정부와의 내전위기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의 중재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다.

카르피오는 17일 발행된 레바논의 석간지 아스·사피르와의 인터뷰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①베트남식의 미군의 직접개입이나 또는②반군과 정부간의 대화중재중 하나를 택일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제헌의회선거에 개입하려하지 않았으며 선거개입을 방지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전투 양면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아스·사피르지는 카르피오가 10일전 레바논을방문, 야세르·아라파트등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지도자들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게릴라운동의「대원로」로 알려진 카르피오는 살바도르 5대게릴라 단체중 가장큰 인민해방기구의 지도자이다.

잇단 爆彈테러에 베이루트外交官들 出國속출

不安속에 탱크級 중무장 乘用車로 다녀

【베이루트17日AP=聯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각국의 외교관들은 최근 폭탄테러가 연이어 터지는데 불안을 느껴 탱크나 다름없는 중무장 승용차를 타고 여러명의 경호원을 거느릴만큼 신변보호에 신경을 쓰고있다.

외교관들에 대한 테러가 늘어가자 아예 레바논을떠나 본국으로 귀환해버리는 사람도 많다.

1주일전 쿠웨이트의 압델·하미드·부에이잔대사가 당국에 아무런통고없이 가족과 함께 레바논을 떠난데이어 요르단,바레인대사들도 최근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라크대사는 5、6개월째 베이루트시를 벗어나 레바논의 어딘가로 피신했으며 대사관에 폭탄공격이 있은후 이라크대사는 西베이루트에 위치했던 이라크영사관을 東베이루트로 옮겼다.

남아있는 외교관들은 여러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조심스럽게 공무를 수행하고있다.

레바논의 관리들은 이같은 테러가 『레바논에진주해있는 평화유지군(시리아군)이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조작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우디와쿠웨이트의외교관들은 외부의개입을 호소했었는데 레바논정부는 『책임회피의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레바논은 테러에 지쳐 외교관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레바논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키게될것을 두려워하고있다.

레바논은 테러의 진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레바논을 파괴하려는 敵들이 테러를 벌이고있다고 비난할뿐이다.

엘살바도르에서의 「레닌式 戰略」

海外論調

美행정부의 對엘살바도르정책은 월남전당시와 똑같은 정치적 허구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시키고있다.

첫째는 공산주의자는 혁명주의자이며 비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이상주의자들이 대중의 모든 여망을 성취시키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혁명운동이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없이 세계의 어떤 전략적 지역에서도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쪽이 나쁘거나 나쁜 것같이 보이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옳다』는 또다른 정치적 모순을 낳고 있다.

오늘날 엘살바도르、니카라과、베트남 그밖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격변은 양쪽이 다 나쁘다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현실적으로 美정책입안자나 진실한 인권주의자들이 도전할 과제는 양쪽중 보다 덜 나쁜쪽을 지지하는데있다.

문제는 공산주의 혁명지도자들이 그들의 공약을 성취시킬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폴란드사태를 보면 공산주의지도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대중의 열망을 달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소련의 창건자인 레닌도 평범한사람이 공산체제를 위해서 싸워 죽지는 않을것이라는 것을 인식,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기도 전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고안했다.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레닌의 책략은 세계의 진보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기위한 선전공세와 여론조작기술이다. 이런 레닌의 책략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中美다.

반군들은 단순히 혁명을 탄압적인 정권에 대항해 싸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떠한 비공산지도자들도 사회개혁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고나서 그결과로 그사회를 지배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때면 꺾을수만은 없었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

러셀·브라이언즈 【美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紙】

海外토픽

女被告와 同寢判事에 實刑

日, 관대한判決조건 "公信力침해"

관대한 판결을 해준다는조건으로 한 여자피고와 性행위를 한 일본의 판사에게 징역1년이 선고됐다.

야스까와·데루오(48) 전직판사는 그가 현직에 있을때인 지난80년7월 절도죄로기소된 33살의 한여인(신원미상)과 호텔에서 3일밤을동침한후 그에게 집행유예를선고했다。

야스까와전직판사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면서 후꾸오까지방법원의 재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의 이같은 행위로 법원의 공신력이 크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東京=UPI】

쥐잡이特攻隊 투입

★佛警、左翼노조무마위해

프랑스의 국립 루브르박물관당국은 좌익계노조에 가입한 일부종사자들이 박물관의 본관건물에 쥐가 설치는등비위생적인 근무조건에 항의, 파업을 벌이자 경찰의 『쥐잡이특공대』를 초청하여 쥐박멸작업을 개시했다고。 【파리=AP】

外信안테나

◆埃·이、새國境타결에失敗 ≡카말·하산·알리 이집트 외상은 시나이반도가 이집트에 반환된후의 이집트·이스라엘 국경에 관한 양국간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실패한채 17일귀국했다. 【텔아비브=UPI】

◆바웬사, 딸領洗式에不參 ≡폴란드계엄령실시이래 연금상태에 놓여있는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오는 21일 그다니스크에서 행해지는 딸 마리아·비크토리아의 영세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같다고 헨리크·얀코프스키신부가 17일 밝혔다. 【바르샤바=AP】

張聰明단장등 再選

在日民團 정기총회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 在日居留民團은 18일 하오 정기총회를 열고 張聰明현단장과 朴成準 현중앙위의장을 재선하고 감찰위원장에 許允道부단장을 새로 뽑았다.

한편 부단장에는 朴炳憲、金致淳씨를 유임시키고 金熙淑東京본부의장을 새로 선출했다.

이날 단장선거에는 張현단장과 金仁洙감찰위원장이 맞서 張단장이 재석4백28명중 2백53표를, 金씨가 1백75표를 각각 얻었다.

아세아한약방

3월22일(월) 확장이전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HEALTH FOOD 겸함.

확장이전

645
Bloor. St. W.
(신용조합옆)

TEL: (B)530—0522
(R)531—4165

빈집문열고 들어서는 아이에 事故防止등 집돌보기 指針書

◇엄마가 직장을 가진 어린이는 항상 스스로 문을열고 빈집에 들어가야한다.

○…엄마아빠가 맞벌이 부부인경우 어린이는 별 수 없이 혼자 집에 남게된다.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며 스스로 열쇠로 문을 열고 빈 집에 들어오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을 래치키 칠드런 (Latch-Key Children)이라고 한다. 할수없이 혼자 남겨두긴 하지만 부모들은 늘 불안하다. 열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불이 나지 않았을까, 가스가 새지않을까, 도둑이 들지는 않았을까….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 불안을 덜기위한 「공식적인 어린이 생존집 (The Official Kids' Survival Kit)」이란 책이 출판되었다.

「래치키어린이」의 어머니인 엘라인·차백여인이 집필한 이책은 사고방지에서부터 여드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수있는 모든 것을 수록해 놓았다. 휴즈를 어떻게 바꾸고, 가스토브에 어떻게 불을붙이며, 누군가가 질식했을때 어떻게 구해주는가하는 내용도 있고 싸우는 부모, 어린이 섬적하대, 외로움등에 관한 내용도 있다.

어른들을 위한것이기도 한데 이책을 읽으면 어린이만을 남겨놓는데 대한 두려움을 덜 갖게된다. 현재 14살된 딸이 생후 3개월될때부터 직장에 다닌 차백여인은 헬스·퍼스·북스회사의 편집장. 그는 자신이어렸을때만해도 래치키어린이들의 최악의 사건은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더 나쁜일들이 일어나는 때이므로 조심해야한다고 주의를준다.

3명중2명이 白人중산층 10세못돼 性的학대로家出 10代 娼女실태 파헤친 論文나와

○…10대 어린창녀들의 실태를 파헤친 새로운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되었다. 버클리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야라·파인스양은 10대창녀들로 메워진 샌프란시스코의멜란시 스트리트에서 2백명의 어린 창녀들과 직접 면담해서 얻은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완성, 전국정신건강연구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놀랍게도 3명중2명이 백인중산층 가정출신으로 이미 10세미만때 집안에서 성적인 학대를 받아 그 고통을 피하기위해 집을 뛰쳐나온 가출 소녀들이었으며 나머지는 가난한 집안출신으로 생계유지를위해 할수없이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

이들의 생활상을 보면 2백명중 불과 10명만이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스스로 원해서 이직업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창녀촌에 들어선 후에도 이들의 시련은 그치지 않는다.

면담결과 73%가 주로 주위의 강력범, 깡패들에 의해 강간을당했다고 말했는데 후환이두려워 신고조차 하지않고있다. 이렇듯 사회의 밑바닥에살고있는 이들은 사회란 원래 불안하고, 포악한것으로 생각, 아예 사회에대한 반감조차 갖고있지 않다. 면담에서 만난 한창녀는 8살때 가족과 이웃들에게강간을 당하기 시작한후 사람을 기피하자 소녀의 엄마는 정신병원에 보냈으며 급기야는 소녀를 내팽개쳐둔채 가족이 모두 그 주를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경우이지만, 모든 가출소녀들은 경찰을 제일두려워하고있다.

女優줄리·앤드루즈 男裝으로 映畵출연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메리 포핀스」등에서 청순한 이미지와 차분한 연기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美여배우 줄리·앤드루즈가 지난해 연기생활 처음으로 젖가슴을 드러내고 스크린에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남장한 모습으로 영화에 출연, 새롭게 변신하고있다.

앤드루즈는 남편 블레이크·에드워즈가 감독한 영화 「빅터·빅토리아」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는 30年代 파리의 나이트클럽등에서 가수로서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남자로 변장하고 여자 목소리를 잘 내는 성우로 성공해가는 主人公을 그리고있다.

앤드루즈는 남자로 연기하는 동안에 남자들만이 가질수 있는 잇점을 찾아냈다고 털어놓았다. 『남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남자들은 그만큼 자신감에 차있다. 여성들이 진정하게 해방되려면 우선 자신의 갈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걸 일깨워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앤드루즈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남편과 나는 한번역할을 바꿔본 적이있었다. 남편이 집에 머물며 대본을 쓰고 나는 TV출연을 위해 밖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동안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말았다. 아내는 역시 집안에서 많이 머물며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는게 그의지론이다.

최낙경作品展

文化短信

서양화가 최낙경작품전이 19일부터 25일까지 덕수미술관에서 열린다. 東國大 교육대학원을 나온 최씨는 국전, 목우회공모전, 르·살롱展, 8·15경축 서양화30인전등에 출품한바있다. 선보이는 작품은 「孤石亭」「靈鷲山비선대」「靜物」등 생명력이 깃들인 작품이다.

李達雨 첫 서울展 실과 布의 構造美

李達雨개인전이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갖는 첫번째 작품전으로 「그리고」등 실과 린다. 서울藝高강사로 이번이 8회 개인전. 발표작품은「작품 82-1」등 30여점.

無形 문화재 舞踊部 공연

제27회 무형문화재 무용부문 정기공연이 19일 하오7시 국립극장소극장에서 열린다. 반주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81년도 전주대사습 무용경연대회 무용부 장원으로 입상한 임이조씨가 태평무 입무 승무 한량무 살풀이를 발표한다. 임씨는 무속무용가 金淑子씨제자.

한국 스포츠에 새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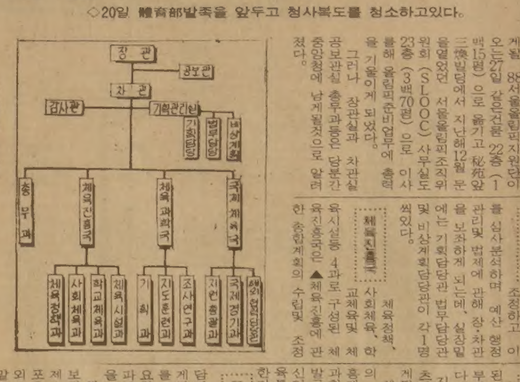
體育部 내일 發足

1室3局9課로 구성 올림픽組織委등 한집에

◇20일 體育部발족을 앞두고 청사복도를 청소하고있다.

한국스포츠에 새로운 장(章)이 열린다.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서울올림픽에 대처하고 국민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기위한 體育部가 내일(20일) 발족된다. 신설체육부는 서울乙支路2街181 한국외환은행본점21층에 자리잡았다. 3백70평이 되는 21층에 체육진흥국(85·9평) 체육과학국(52·39평) 국제체육국(〃) 기획관리실(38·18평)등이 각각 들어섰다. 체육부는 내년 果川청사로 옮길때까지 이곳서 업무를보게된다. 1백8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 캐비닛등 집기들도 새로장만했고 전화가설도 19일에 끝나게된다.

또 서울올림픽 개최를위해 체육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될 88서울올림픽지원단이 오는27일 같은건물 22층(1백15평)으로 옮기고 秘苑앞 三煥빌딩에서 지난해12월 문을열었던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사무실도 23층(3백70평)으로 이사를해 올림픽준비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장관실과 차관실 공보관실 총무과등은 당분간 중앙청에 남게될것으로 알려졌다.



◇體育部 기구표

체육부는 장·차관밑에 기획관리실 체육진흥국 체육과학국 국제체육국등 1실3국에 9과1담당관,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등 1백87명으로 구성된다.

기획관리실 체육부의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행정관리및 법제에 관해 장·차관을 보좌하게 되는데, 실장밑에는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이 각 1명씩있다.

체육진흥국 체육정책, 학교체육및 체육시설등 4과로 구성된 체육진흥국은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및 조정 ▲올림픽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및 조정 ▲분야별 체육발전계획의 조정을 비롯해 ▲사회체육의 진흥 및 직장체육의 지도▲학교체육의 육성및 운영의 지도 감독등을 맡게된다. 특히 체육진흥국은 국민체육심의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육관의 지도감독, 국민레크리에이션의 보급에 힘을 기울인다. 이밖에 학교및 사회체육시설의 확보,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경기용구의 표준화및 수입추천, 체육관련단체의 업무를 맡게된다.

체육과학국 체육과학국은 신설체육부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있는 부서로 기획 조사연구 훈련지도 3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형식에 그쳤던 스포츠과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된다. 체육과학국은 ▲스포츠과학 진흥계획수립및 조정 ▲스포츠 과학기관의 지도감독 ▲신인발굴을위한 기준치의 설정▲체육특기자 관리등 업무를관장한다.

국제체육국 국제경기과와 지원총괄과 1담당관이 있다. 86년 아시안게임및 88년 서울올림픽대회 업무를 총괄하고 두대회를 위한 요원양성 국제경기대회 선수파견, 국내개최에따른사항등을 처리한다. 해외협력담당관은 국장을 보좌,▲국제스포츠교류▲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스포츠관계 각종국제대회▲해외스포츠지원에 관한사항을 맡는다. 특히 국제체육국은 국제친선교환경기와 프로경기 교류에관한 사항도 다루게되어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선수에대한 초청및 파견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少年體典 심벌마크 제1회 소년체육대회 심벌마크. 오는5월19일부터 23일까지 大田서 24개종목의 경기를 벌인다.

한국일보 533-2361

뇌성마비 올림픽 참가희망자 모집

뇌성마비아 복지회(회장金學默)는 오는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열릴 뇌성마비자 올림픽에 참가할 뇌성마비자의 신청을 받고있다. 여행비는 자비부담이며 신청마감은 20일. 문의전화 [illegible]5983.

遺傳工學 심포지엄 전문가 5백60참가

20세기 과학의 최고봉이라 할 유전공학에 대한 [illegible] 18일 [illegible] 5백60여명이 [illegible]

나바레테 2차방어 리몬과 내달美國서

【마닐라17日AP=聯】지난1월 한국의 崔忠日을 11회KO로 제압하고 1차방어에 성공한 WBC(세계권투협의회) 슈퍼페더급 챔피언 필리핀의 로란도·나바레테가 오는 4월24일 美네바다州 라스베가스에서 멕시코의 라파엘·리몬과 2차방어전을 갖는다고 17일 발표했다.

中共에 골프場등장 觀光客유치위해

【東京17日=聯】中共의 北京과 廣東省에 사회주의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골프장이 건설된다. 교오도(共同)통신이 보도한바에의하면 이들 골프장은 일본기업이 연내에 착공, 84년봄에 완공할 예정.

한국어머니籠球팀 渡日경기서2연승

【東京17日=聯】친선경기차 日本을 방문중인 한국어머니 농구팀은 17일 도오쿄에서 關東선발日本어머니팀을 49-27로 눌러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어머니회선수들은 21일 귀국한다.

黃善愛·柳尙希조 準決에 덴마크 배드민턴

【코펜하겐17日AP=聯】한국의 黃善愛·柳尙希조는 17일밤(한국시간) 코펜하겐에서 속개된 제30회 덴마크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준준결승에서 日本의 도쿠다·아스꼬, 요네꾸라·요시꼬조를 15-5, 15-9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金練子·金允淑조는 中共의 린·잉, 우·디시조에 15-6, 15-2로 패배, 탈락했다. 金練子(경남대)는 여자단식준준결승에서 中共의 수롱에 12-9, 11-4로 패배했다.

◇제2일전적

▲여자복식준준결승

黃善愛·柳尙希 2 (15-9 15-5) 0 도꾸다·요네꾸라

린·잉·우·디시 2 (15-2 15-6) 0 金練子·金允淑

▲여자단식준준결승

수롱 2 (11-4 12-9) 0 金練子

[illegible]

설악회 國史특강 매주 목요일하오

설악회(회장 이정숙)는 매주 목요일 하오2시~4시 설악회관(☎0204)에서 여성들을 위한 國史특강을 갖는다. 제1학기에는 李朝妃嬪史가 강의되며 강사는 주영박교수.

流星의 賊 <336>

李炳注作 李友範畵

風前의 燈火 ⑪

풍전의 등화란 말은 당시의 한성을두고 하는말이다. 위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론 천부(賤夫) 노비(奴婢)에 이르기까지 사색(死色)으로 되어 그저 분주히 서둘기만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임금을 모시고 한성을 사수(死守)해야 한다는 파와 임금이 한성을 떠나야 한다는 파로 조정이 시끄러웠는데 충주 패전의 소식은 이러한 토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밤 묘의는 일결됐다.

『임금은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가서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도록 해야한다』로 된 것이다.

이 소식을 갖고 이영이 홍계남에게로 달려왔다. 그리고 같이 궁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번 홍계남이 깊이 생각한 바가 있었다.

『어가를 모시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읍니다만, 남아서 부모를 지키고 나아가 일선에서 왜적을 무찌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신립이 충주에서 패배했으니 왜적이 언제 안성(安城)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니 자기는 안성으로가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피력했다.

이영은 다시 계남의 번의를 청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은근히 계남의 지위에 관해서 병조와 의논했지만 병조는 계남의 출생을 구실로하여 계남에게 좋은 직책을 주지 않으려 한데 있었다.

『홍공의 소신대로 하게』

이영은 짧막히 말하고 계남의 손을 잡았다.

『숙랑을 어떻게 해야 하리까』

계남의 당면한 걱정이었다.

『누이는 내가 맡아 우리 가족과 함께 양주의 산속으로 피할테니 걱정말게』

하고 이영이 담담히 뒷일을 맡았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했을 때의 이영의 음성은 침울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하며 숙랑을 응시하는 계남의 눈에 빛나는 것이 있었다. 눈물이 이슬처럼 맺힌 것이다.

어쩌면 영이별이 될지 모르는 운명을 앞에 하고, 이영과 홍계남은 숙랑을 끼어 조촐한 송별연을 열었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임금의 서행절차가 결정되었다. 광해군 혼(光海君 琿)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같이 데리고 가기로 하고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이 하도 호종의 명을 받았다. 왕비 박씨를 비롯하여 궁빈수십인도 서행의 일행속에 끼었다.

그리고 선조의 제1자인 임해군(臨海君)은 함경도로, 제3자 순화군(順和君)은 강원도로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호소하기로 했다.

유도책임자(留都責任者)는 다음과 같다.

도원수 김명원(都元帥 金命元)
부원수 신 각(副元帥 申恪)
유도대장 이양원(留都大將 李陽元)
좌통어사 이성중(左統禦使 李誠中)
우통어사 정윤복(右統禦使 丁胤福)

그런데 이러한 판국에서도 탄핵소동은 그치지 않아 행차 1일만에 대간 김찬(臺諫 金瓚)과 대사헌 이헌국(李憲國)등의 건의가 있어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은 파직되고, 영의정으론 유성룡, 좌의정으론 최흥원(崔興源) 우의정으론 전리방환(田里放還)중이던 윤두수(尹斗壽)가 임명되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⑭ (題字 金蘇東)

豫科시절의 모험과 野望

朝鮮학생 우수성 과시 各分野서 분주한 活動

두마리의 토끼를 쫓는자는 한마리의 토끼도 잡지못한다는 속언이 있다. 대학예과 佛文학과에 적을둔 내 본분 즉 학문을 닦아가는 학생으로서 모든 과목에서 결코 일본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일에서 너희들보다 앞서가리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과외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시작했다. 대학음악부, 모터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늘 간부로 교수들과의 접촉도 많아, 동료학생들의 선망을 샀다. 때로는 음악회도 가졌고 때로는 야나세(柳瀨)라는 렌트카회사에서 승용차를 빌어 교수님들과 같이 원거리 드라이브도 갔다.

학업면에서나 과외활동에서나 뛰어난 조선학생이라는 인식이 선생들과 학생사이에 심어졌다. 그래서 나의 대학예과시절은 공부도 공부려니와 근대문명을 뛰든지 흡수하고 체험해보려는 무모한 야망으로 가득 차있었다. 영화도 빼놓을 수는 없다. 꿈이 너무 많은 학생들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못하고 다 놓치고 마는 것일까.

내 예술에의 집념은 음악에도 한몫이 깊은 매력을 느꼈으나 映畵에는 더욱 그러했다. 토요일 오후면 으레 하숙에 돌아오지않고 아사구사(淺草)로 직행했다. 그 화려하고 많은 선전간판을 걸고 즐비하게 늘어선 영화관거리를 누비면서 보고싶은 영화들을 차례로 보았다. 보고싶은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은 내적성에 맞는 예술적 감각으로 느껴졌다.

취미생활이 어느덧 변질되어서인생의 긴 나그네길을 좌우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다. 후일 사회생활에서 비로소 느껴본 사실이긴 했으나 인생이란 오묘하고 신비한 매력에 끌려 가시덤불같은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않고 전진하는것 같다.

그러한 예는 허다하게 많다. 독일의 괴테는 의사이면서도 유명한 문학작품「파우스트」를 썼고,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즈·캐그니 역시 그러했다.

故 劉漢徹씨도 세브란스의과대학을 나온 명문가다. 다혈질이며 야망에 가득찼던 나의 동경시대를 회상할때 그무모하고 허황된 모험들이 때로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고보동창인 故 高周爽박사는 훌륭한 내과의이기도했으나 클라리네트 연주자로서도 훌륭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음악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의학박사의 위치를 고수했다.

하면 된다는 의욕이 충천했고, 일본학생들에게 져서야 되겠느냐는반항이 바로 이 시절에 나를 사로잡았던 정신적인 전부였던것 같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사구사2번관에서 30전짜리 문화영화 한편을 봤다. 독일 우파(Ufa)사작품으로 「피의 적」(血の敵)이라는 것이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뛰어난 표현력을 기억하고 있다. 내 청춘시대의 여성관계를 올바르고 깨끗한 것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영화라고도 생각된다.

성병예방을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 감동적인 표현을보

◇예과시절 자동차클럽회원들과 찍은 기념사진。앞줄 왼쪽 서있는 분이 사또교수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필자다.

獨逸영화「피의 敵」보고 크게 感銘 映畵 藝術과의 平生因緣 동기얻어

고 영화가 지닌 측량할수 없는 위대한 힘을 느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내 평생을 이끌어온 영화예술에의 길을 마련해준 원동력이 된것 같다. 젊은 한때의 우발적인 섬광을 흘히 있을수 있는 인생역정에서 쉬제한 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에피소드로 시작된 그 다큐멘터리적해설과 표현은 독일영화적인 과학성과 특수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했다. 젊은 대학생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여성과의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성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성병균이 옮아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표현해서 만인이 다 수긍할수 있도록한 감명깊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당시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고, 국가적이득을 가져온 영화다. 더우기 성병이 빚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의학적으로, 도의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우생학적으로 그려서 매혹과 감동과 교육을 한꺼번에 던져준 문제의 작품이다. 그후 허다한 문화영화를 봤으나 이렇게 감동적인것을 본일은 드물다.

다큐멘터리영화의 특수성과 그 무한한매력을 느끼면서 밤늦게하숙으로 돌아왔다. 영화에의 정열을불태우며 간다(神田)에 있는 헌책점을 찾아가 영화서적을 마구 사들이던 때도 바로 이시절이다.

부고

본 동창회 회원 주요성(6회)씨가 1982년3월22일 런던 온타리오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창제위께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특별히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결식 : 1982년3월24일오후1시 (Logan Funeral Home 런던)
전 화 : 1-519-633-5647
631-4432
주 소 : 352 Wellington St. St. Thomas

서울사대부고동창
회장 : 김 현모

토론토 한인 성서신학원

1982년도 제1학기 학생모집요강

평신도 선교의 일선요원과 교회를 봉사코저하는 사명자들의 훈련기관인 본교는 다음에 의하여 신입생을 모집 하고자함.

①모집인원 : ○○명
②지원자격 : 세례교인으로써 성서를 배우고 교회봉사를 원하시는분
③원서접수 : 1982년3월31일까지 본교 교무과에 제출할것
④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사진 2매 수업료 $65
⑤기 타 : 상세한 문의는 본교교무과로 연락바람
(1183 Davenport Rd Toronto Ont M6H 2S7)
전화 : 535-6864
⑥재학생은 4월1일 오후6시 개강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람
⑦개학일자 : 4월1일(목)오후6시

토론토 한인성서 신학원장
박 희 민

意安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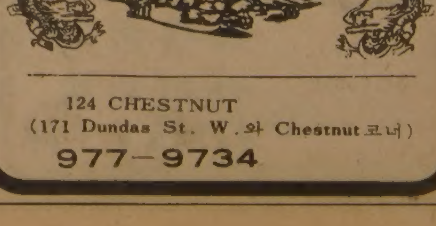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 코너)
977-9734

맥아더將軍은 天堂에 가더라도 神이 玉座에서 내려와 王冠씌워

트루먼 그가 「아메리카의 시저」 될까 겁내

우아·전통·위대성갖춘 최고의 미국인
最年少 참모총장에 최초의 5星將軍
日皇을 「天人」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주그럼장군모, 까만가죽잠바, 옥수수파이프, 5星은 맥아더장군의 상징이다。미육군성이 공식촬영한 이사진은 2차대전때 마닐라에 재입성해 찍은것이다。

美国 이런일·저런일 ⑯

한국의 전국 초기가 갑은 또하나의 미국인은 故더글러스·맥아더 장군이다. 한군은 반드시 한국에서만 유명한게 아니다.

미국 사회의 지배계층을 예리하게 분석한 故C·W·밀즈씨(전 콜럼비아大교수)가 쓴 「파워·엘리트」의 책표지에는 장군의 유명한 「주그럼장군모」가 상징적으로나와있다.

미국을 지배하는 계층이군부와 산업사의 복합 그룹이라는 밀즈 교수의 분석에 맥아더의 모자는 상징이상의의미를 부여하고있다.

미국을 또하나의 면에서움직이는 사유·급진주의자의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이장군들 保守·極端主義의 상징으로 내도하고있다.

이때분인지 가장 연소한나이로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졸업했으며 4번이나 공로훈장을탄 미국 최초의 5성장군으로 한국전을 수행한 이 장군은 작년 8월에야 펜타곤 「名將의탑」에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로 그의 모습을 걸어볼수있었다.

한국전을 수행중이던 51년 4월, 그를 해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14년에 쓴 한 일기에서그를 조지·워싱턴이나 퍼싱·아이젠하워등의 名將, 德將과는 궤를 달리하는인디언 살육전을 벌인 커트라장군, 2차대전중의 용장 패튼장군등과 동렬에 놓고 괴략스런장군으로표현하고있다.

32년여름 어느날 뉴욕지사에서 民主黨 대통령후보로지명된 루스벨트는 루이지애나주지사였던 보수주의사 휴·롱의 축하전화를 받았다. 함께있던 정치고문 렉스·터그웰은 다음 옹 전화는 당시 보수·극단론을 펴던 찰즈·커린신부 일것이라고 루스벨트에게 말했다.

『천만에! 다음 전화는 더글러스·맥아더일거야!』—루스벨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지에 있던 그를 保守·極端主義대열에 넣고 있었다.

트루먼이나 루스벨트등 자유주의자에 속하는 民主黨대통령들은 자유·급진주의의밀물로 밀어닥칠 保守主義의패사로 맥아더가 등장할것을두려워 했던게 분명했다.

이들 민주당 지도자들은 『맥아더가 우아·전통·위대성의 외양을 갖춘 최고의 미국인』이며 미국인 정신의 한면을 차지하고있는『거대한것에대한 숭상』때문에 그를「아메리카의 시저」로 받들까봐 두려워 했다.

이들은 맥아더를 미국의 군인으로서는 지극히 정치적인 장군으로 간주했다.

루스벨트 밑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해럴드·이크스는33년『맥아더는 天堂에 가더라도 神이 백색의玉座에서 내려와 王冠을 씌워주고 그에게 절을 할것이라고 믿는 그런 인물이다』고 평가했다.

그의예견은 현실화되어 거구의 장군은 45년 카키복차림으로 日本의 天皇히로히토를 天人에서 끌어내려 나란히 함께서서 기념촬영을하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되기도 했다.

이때 그는 고의로 예복을 입지않고 카키복의 약장으로 궁으로 갔으며 처음으로 天皇이 인간과 동열이라는것을 日本人들에게 공개했다.

트루먼은 그의 해임이유를 맥아더가 미국군 최고사령관인 대통령과의 약속을어기고 共和黨원내총무 마틴에게 만주폭격을 요구하는 서한을보낸것은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것과 같기때문이라고 술회했다.

미국인들에게 맥아더의 인기는 대단했다. 44년 미공화당 대통령 후보인기조사에서 3위였으며 48년 여론조사서는 트루먼의 인기를 능가하는것이었다.

51년 해임되어 뉴욕에 그가 도착했을때 7백50만명이 길거리에 나왔고 뿌려진 색종이는 1천6백60만리터, 하오에는 국민학교가 휴교했고 부두노동자는 파업했으며 정신병자들까지 가두퍼레이드에 참가했고 구경꾼 18명이 졸도 실신했다.

맥아더는 그의 해임을『정치적 살인』이라고 비난했다. 미주리 출신 하원의원드위·쇼트는 맥아더의 연설을 듣고『神의 肉聲, 하느님의 소리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이런 열광은 잠시였다. 52년 공화당 대통령지명전에서 그는 아이젠하워에 패배했다.

맥아더가 생각했던 한국전의 확대는 한때 그의 참모였던 아이젠하워에 의해 휴전으로 내달았다.

【朴涌培기자】

都市文明에 견디다 못해 에스키모 다시 氷原으로

자살·성병늘고 술로 고독달래

◁사냥해온 물개등 동물가죽을 말리며 즐거워하는 에스키모인。덴마크 자치령 그린랜드의 에스키모인들은 도시문명의 이기를 내던지고 다시氷原으로 돌아가고있다。

에스키모들이 氷原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덴마크자치령 그린랜드 인구50만중 대부분이 에스키모인.

이들은 덴마크당국의 강제이주정책으로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현대문명에 적응하지못한채 옛날 혹한과 싸우며 평화롭게 살던 빙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에스키모인들에게 5~6층짜리 현대식 아파트가 주어지고 생소한 전기제품과TV, 난방시설이 갖춰젔건만 발코니에는 코펜하겐에서 수입한 블루진과나란히 물개표피와 대구포가 널려있다.

에스키모인들은 현대문명과의 어쩔수없는 괴리감에못이겨 자살을택하는 수가 늘고있다. 자살률은 30년전보다 7배나늘어 작년에 약2백50명이 스스로목숨을 끊었다. 문명병으로 일컬어지는 성병에 15세이상의 성인35만명중 8천5백명이 감염됐다.

늘어난건 또 있다. 술, 술, 술이다. 지난 20년동안 정부의 알콜억제책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술소비는 3배로 늘었다.

최근 정부당국은 술배급카드제를 실시, 성인1인당 72개의 쿠폰을 주었다. 쿠폰1개에 위스키1잔, 3개에 술1병。그러나 음주억제책은 더욱더 술에대한호기심만을 자극해 음주량은 늘어만가고있다.

비매로 되어있는 쿠폰은 암시장에서 얼마든지 살수있고 스카치위스키 5분의1병이 암시장에서 23달러(1만6천1백원)나돼도날개돋친듯 팔린다.

수도고다브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린지박사는 『대부분의 에스키모인들은 정서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전체구성원이 함께 일하면서 식량과물을 구해오고 집을 짓고 살던 전통적인가족단위의생활체제가문명의이기때문에붕괴되고있음을우려하고있다.

최근 에스키모인들 사이에 다음세대를고독과 알콜중독및 성병으로부터 구해보자는노력이 움트고 있다. 최근 EEC에서 탈퇴한것도 그같은 노력중의하나다.

【고다브=外信】

세계의 社會面 / 世界의 사회면

"傳統"지키는 "印尼" "바두이族"

정부의 同化정책도 허사
文明의利器 철저히 거부
음주·흡연 禁忌사항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서쪽으로 1백60㎞떨어진 한 화산기슭의 깊은 산림속에 은거하고있는 바두이族은 인도네시아정부의 끈질긴 同化공작에도 불구하고 굿굿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바두이族들에게 현대식영농방법을 보급하고 교육, 의료시설을 제공하는등 그들을 현대문명속으로 끌어내기위한 정책을 펴고있지만 모든 문자생활이나 현대문명의利器를 거부하는 바두이族의 엄격한 禁忌풍속때문에 별다른 성과를거두지 못하고 있다.

바두이族은 자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해나가기위해 색다른 방법을 쓰고있다.

바두이族은 스스로를「內바두이」와 「外바두이」의 두집단으로 분류한다.

「內바두이」는 철저하게 종족의 전통을 지키는 골수집단이며 「外바두이」는 어느정도 외부세계와의 교통을 허용하는 집단이다.

바두이族의 최고지도자인 푼이 이끄는 內바두이는 흰색 홈스펀으로된 전통의상을 착용하며 농사지을때 비료를 쓰거나 관개시설을 하지않고 금속제품이나 바퀴달린 물건을 쓰지않으며 색깔있는 옷을 입지말고 침대에서 자거나 음주·흡연을 금하는 전래의 금기사항을 철저히 유지하고있다.

內바두이는 또자신들의 순수성을 유지하기위해 40가구 3백명정도로 인원을 제한, 인구가 증가하여 이를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은 內바두이지역을 떠나도록 하고있다.

外바두이는 內바두이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內바두이와 외부세계와의 완충역할을 맡고있다.

수하르토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수년전 푼을 만나기위해 바두이族의 영토에 들어가려 했으나 外바두이지역에서 푼과 회담하는데 그쳤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바두이族에대한 同化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주 조심스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이처럼 푼의 위치가 확고히 굳어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정부는 현재까지 外바두이族만을 대상으로 동화정책을 펴고있을 뿐 內바두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고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카르타=外信】

버마少數民族 첫聯合軍구성

◇버마수도 랑군의 한사원앞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그러나 버마는 카렌族의 소요로 평온이 자주 깨진다。

버마의 소수민족들이 35년만에 최초로 연합군을 구성, 중앙정부에 강력한 반기를들고나왔다.

최대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을 비롯, 아라칸, 라후, 팔라웅, 몬, 샨등 버마의 각종 소수민족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버마집권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성했다.

버마 남동부 태국접경의험준한 도나山기슭을 거점으로 카렌족이 주동이되어 벌이고 있는 버마소수민족들의 反政투쟁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48년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버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버마族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40여개의상인 버마의 소수민족들의 反

카렌족 주동 兵力5만여명
反政투쟁 35년…戰列 강화

政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反政운동을 이끌고있는 카렌민족해방군(KNLA)지도자 소·보·미야장군은 현정부가 소수민족들의 기본인권을 무시하고 2급국민으로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버마의 모든 소수민족들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을수있는 自治州를 획득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카렌지방의 주요도시 코루라에서 기타 소수민족지도자들과 회합을 갖고反政활동을강화하기위해연합군을창설하기로합의했다.

연합군의 병력규모는 현재 1만명가량인 카렌민족해방군을 주축으로 5만명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카렌족은 49년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철저히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영국치하에서 카렌족은 대부분 군대에 종사했고 버마족은 공무원등으로 일했다.

영국인이 떠나자「집 지키던 개」를 제치고「애완용 강아지」가 난로옆의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버마 중앙정부에 충분히 대항할만한 실력을 갖추기에는 아직도많은문젯점들을안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反政세력들이 워낙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소수민족중에는 현 집권당인 버마공산당과 유대관계를 가진 종족도있고 다른종족과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족도 많다.

카렌족의 지도자 소·탄·웅은『외국은 랑군정부만을 지원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자유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朴永喆기자】

15만명의 冷待文化

記者의 눈

白濠主義를 오래 고수하던 호주는 이제 누가 봐도 각양각색의 문화와 언어가 혼용되는 多民族국가로 급히 변모하고있다.

호주에 거주하고있는 20여인종들은 매일 52개어로 방송되는 라디오를 듣고 시드니의 TV시청자들은 채널28을 돌리면 프랑스영화에서 서독의 기록영화, 그리스의 버라이어티쇼 또는 아랍의 코미디까지 볼수 있다고한다.

호주의 전화번호부는 6개국어로 수록되었으며 그중에는 터키어, 세르비아, 크로티아어까지 눈에 띈다.

최근 실시한 인구조사의 용지는 11개국어로 인쇄됐다.

이것은 호주가 비유럽계의 이민을 금하던 이른바 白濠主義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한 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호주는 지금 국가가 필요한 기술보유자나 호주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보다는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많이 닮았다.

2차대전 전에만 해도 전인구의 95%를 차지하던 앵글로 켈트계는 이제는 60%까지 떨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호주인은 과연누구냐는 集合인격으로서의 주체성문제도 심심찮게 거론하면서 各문화사회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나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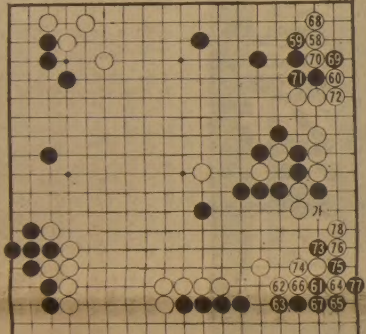
호주국민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인종폭동이란 것이 없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인디언들처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정착초기 원주민의 대량학살등이 상기되고있다. 복합문화는 좋지만 지금도 최저의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는 15만원주민의 참상을잊지말라는소리도뒤따른다.

호주가 내놓고 자랑할수없는 不平等의 문제가없는게아니다.

【敍爽根기자·外信部】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5局 第5譜 58~78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姜 勳〈3勝0敗〉
黑(7段) 河 燦 錫〈2勝1敗〉

우변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姜4단이 마음놓고 우상귀 3三에 白58로침입하자 河7단은『허참』하고 한마디。그리고 부득이 黑59쪽을 막더니 고개를 사뭇젓는다.

白60은 당연한 젖힘이다. 그런데여기서도 黑은 즉시 70자리에 응하지않고 주춤주춤한다.

黑61로 70이면 자연 白69의 선수를 당하고 게다가 우하귀를 白이먼저67자리에 뛰어붙이는 선수마저당한다.

河7단으로서는 우변을 크게굳혀준데다 우상귀와 우하귀까지 계속당하면 억울하기 짝없는 노릇이다.

이리하여 우상귀는 黑에게 내어주는 셈치고 우하귀에 黑61로 선착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黑61에 대해서는, 白62이하 66의 호착이 마련되어있었다.

白 有望한 局勢

黑67을 응수시키고서 우상귀에 돌아와 白68. 이것으로 白은 거듭거듭 대득을 본것이다.

河7단은 매우 아픈표정으로 한동안 애석하게 이곳을 바라본다. 黑69, 71. 아마추어 저단자면 마치 화풀이같은 억지수, 혹은 손해수처럼 여길지 모르겠으나 실상 이런 모양에서는 선수를 잡기위한 올바른 처리라고 한다.

그선수를 우하귀에 행사한 黑73은 맥점. 이하 77까지 역시 선수로 적지않은 영지를 확보했다.

수순중 白74로 75의곳을 이으면 黑이 「가」로 올라이는 수가있어 白이 무리.

白78로된데서 대세는 다시금 팽팽하여 보이지만 白이 다소유리한게 사실. 그러면 黑은 어디서 만회의 기틀을 잡을는지.

【一凡】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4>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⑤①

누가 보기에도 이제 그만했으면 단념할 때도 됐다싶을즈음 수철이는 누이동생을 찾는 일을 단념했다.

수철이가 그 무렵「오누이의 집」이라는 고아원의 유원장을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점심을 같이 한 친구가 같은 음식점에서 혼자서 점심을 먹고난 유원장을 오래간만에 만난 고등학교선배라고 반가와하면서 수철이에게 소개했고, 세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방으로 같이 가게됐다.

이런얘기 저런얘기 하면서 그 선배가「오누이의 집」원장이고 그집을 운영하게 되리란걸 수철이가 알게됐다.

「오누이의 집」이 수인이가 있는 고아원임을 잊지않고있던 그는 그 우연의 만남속에 감추어진 계시 같은 걸 민감하게 느꼈다. 그 계시를 모른다고하면 지난날 오목이를 모른다고한데대한 벌까지 아울러 받은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는 무의식중에 오목이를 모른다고한데 대한 벌은 유보(留保)된데 지나지 않음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수철이는 그자리에서 정중하게 유원장에게 뒤에서 돌봐줄 참한 고아를 한명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갑작스런 제의의 진의를 몰라 어리둥절하는 유원장을 친구는 이렇게 안심시켰다.

『선배님, 이 친구 사변통에 부모님 여의고 여동생도 하나 잃었거던요. 부모님의 참변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동생은 피난길에서 잃어버렸다나봐요. 그 동생을 찾아보려고 이 친구 전국방방곡곡 안가본데가 없고, 광고비만도 숱하게 뿌렸지만 허사였죠. 자식도 아니고 동생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일수가 없더니 세월이 약이라고 요새 잊어버린만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고아원 소리를들더니 그놈이 또 도지나봐요. 비슷한 또래의 애하나 뒷바라지해주면 이 친구한테도 위로가 될테고 그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될테니 참한 애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야 어렵지않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은 몇명의 참한 고아중에 오목이의 이름도 끼어있었다. 오목이가 참한 고아라는게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 그녀를 또한번 모른척하고싶은걸 겨우 겨우 참고 두렵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목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가 목이를 위해 해준건 유원장이나 친구가 기대한것만 같지못했다. 당장 집에 데려다 한식구를 만들어주진 않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고 가끔 가족적인 분위기에 초대도 해주면 고아에겐 다시 없는 기쁨이 될거라고 유원장이 누누이 말했지만 그는 끝내 익명(匿名)일 것을 고집했다.

우선 조촐한 데 취직을 시켜놓고 뒤에서 살펴보아 된성부르면 학비를 대줘 대학공부도 시켜주고 또 기회보아 서로 만나볼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나서고싶지않다는 거였다. 유원장도 그런 그의 태도를 목이가 된섭부르지않으면 언제고 손 떼고 싶은 정도로 받아들이고 내심 아니꼽게 생각했지만 굳이 마다할 계제도 아니었다. 일찍이 본전이지 하고 두고 볼 참이었다.

그러나 목이를 영광학원에 취직시키고나서 유원장이나 수철이가 그녀를 자주들본건 아니었다. 유원장은 고아원원장에서 사업가로 탈바꿈하는 일만으로도 벅찼고 수철이는 친구가 하는 학원에 목이를 취직시키기 위해 친구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게 고작이었다.

女性界 소식

李信雨패션쇼 성황 뉴욕 파손·스쿨서

지난4년 동안 미국에서 작품을 해온 오리지널 디자이너 李信雨씨(사진)의 패션쇼가 뉴욕 파손·스쿨에서 지난9일 열려 좋은성과를 올렸다.

홍패션디자인 강습 디자이너 朴洪根씨

무역진흥공사 초청으로 지난1월 내한, 홍패션 디자인 전시회와 특강을 가졌던 在美디자이너 朴洪根씨는 앞으로 한달동안 디자인 특강을 연다.

섬유·가구·벽지등의 기성디자이너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홍패션의 지혜와 實技를 다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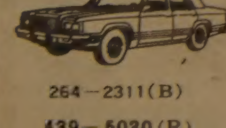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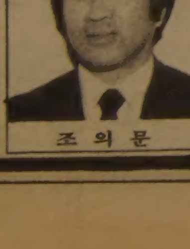
◎차종류에·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신학대학(토론토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 득 학 위	특 전
학위	교역(신) 학석사 (M. Div.)	① 수세후 2년 이상자 ② 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학위	신학사과정 (B.A.)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 학 사 (B.A.)	① 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학위	종교음악과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B. MUC.	① 음악목사 코스 ② 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 제한 없음 ① 수세후 1년이상자	2	수 료 증 (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및 시험 장소 : 본대학 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416) 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 1982년 3월 30일(월) 오후 6시
3. 전화 문의할 곳 : 762-1495, 630-073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 비 서 류 : ① 입학원서 ② 최종학교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③ 당회장 추천서 ④ 사진 3매(명함판) ⑤ 전형료 $ 50.00(시험당일 지참)
* 시 험 과 목 :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 험 일 시 : 1982년 3월 31일 오후 7시
　시 험 장 소 : 본대학 강의실
6. 합 격 자 발 표 : 1982년 3월 31일 당일 발표
7. 수 업 시 간 :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 록 금 :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 교 일 시 : 1982년 4월 5일 오후 6시(신입생 Ori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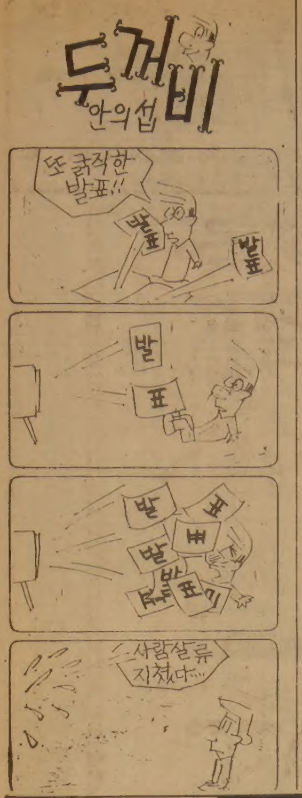
✣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 학장자문위원 (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 (Prof. of Drew Unv.)

✣ 종교음악과 교수진
○작곡 : 박재훈 박사
○기악 : 유희자 박사(오르간)
○성악 : 이주연 선생

✣ 신학과 교수진 :
최양선 강세대 김창길 이병규 김용주
최상봉 안상엽 김용진 최이열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이병규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在所者 면회시간 늘린다

절차등 全面개선키로

전국矯正기관장회의 不正발생땐 連帶책임

법무부는 전국교도소및 구치소의 재소자 접견시간을 연장하고 접견절차를 간소화하는등 재소자 면회제도를 전면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 불편했던 미결수와 변호인간의 접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접견시간을 늘리기로했다。

李鍾元 법무부장관은 18일 상오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접견업무는 교정업무중에서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업무』라고 지적,『올해안에접견제도를 획기적으로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감호소, 소년원, 소년감별소등 4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李장관은 또『교정사고를 근원적으로 봉쇄키 위해 금품수수나 부정연락, 의무부조리등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는 한편 교정부조리가 발생할때는 교도소장등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송통신교육의 대폭 확대실시 ▲시청각교재를 통한 입체적교육실시 ▲종교인들을 통한 감화교육강화 ▲출소자의 성공사례발간 ▲정예 직업훈련을 통한 고급인력양성 ▲전국 소년원의 특수학교화등 광범위한 교정업무개선방안을 마련했다。

金哲中5단 준결에

東京 국제아마바둑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東京에서 열리고있는 제4회 세계아마바둑대회에서 한국의 金哲中아마5단이 18일 미국의 고바시가와 아마5단을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결혼예물, 보석및 시세…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준공되자마자 관광객이 몰려들고있는 榮山湖의 기념비주변。 제방에는 관광객들이 쉴 의자하나, 화장실하나없고 잡상인들만 성시를 이루고있다。

榮山湖

湖南최대의 名所 종합개발 아쉽다

河口堰완공 관광객 하루3千명

빈약한 地方財政…국가적關心을

여기는 移動讀者部

木浦-靈岩-務安 3개市郡인접 개발 主導權놓고 官民 신경전

【木浦=裵琪哲기자】인공호수 榮山湖가 호남최대의 관광명소로등장했다。연일 관광객이 몰려들고있어 인근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게하고있다。호남의젖줄인榮山江하구(河口)를 가로막은 전장4천3백51m의 거대한 제방하나로 만들어진 이호수는 수면이 3천4백60ha(만수기준·저수량2억5천3백만톤)로 바다같다。그러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개발계획이 서지않는한발전의 한계를 곧드러낼것같아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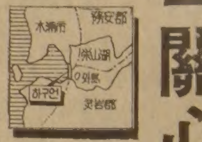
榮山湖의 길게뻗은 제방을 중심으로 상류쪽에는 광활한 호수가 시원스럽고 하류에는 바다물로 연결된데다 木浦항구가 한눈에 들어온다。또 儒達山으로 유명한 木浦항이 인접해 있고 잘 포장된 남해안관광도로가 각지의 관광명소로 거침없이 연결돼 누가보아도 관광명소로서의 입지조건이 충분하다。게다가 카페리로 濟州와 木浦가 연결돼 있어 濟州관광객들이 쉽사리 한번 들러볼만한 곳이다。

이처럼 좋은조건때문에 지난해 준공되고 급수가 시작되면서부터 전국에서 하루 평균 2~3천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榮山湖에는 휴일인 요즘에도 몰릴때는 50여대의 관광버스와 자가용들이 몰려 시끌벅적하게 붐빈다。이들은 방길을 달리며 木浦항과 바다, 트인 호수와 호수를 가로막은 웅장한 수문의 인공미에 찬사를 보내고있다。그러나 관광객들은 다리한번 쉴곳이 없어 기념사진만 두어장찍고는 아쉬운 발길을 돌리고만다。

어디 개울 멍게좌판의 노점에서 선채로 술이나 음료수한잔을 마실뿐 용변조차볼곳이없다。 기껏해야 2백여명을수용할수 있는 [illegible] 주변에 몰려드는 관광객에 비해 잡상인숫자가 늘어가고있고 이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다니야하지만 그들이라도 있으니 관광지기분이 난다는게 먼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푸념。

湖는 당초 목적이농,용수개발용이었기때문에아름다운경관을 한눈에보며 산책할수있는 제방위에가로등 하나없고 물한모금 먹을시설이 없는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당초 목적외에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개발가치가 생겼으면 그에따른 개발계획이뒤따라야할것』이라는것이 관광객金明洙씨(56·大邱)의 말。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이다。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추면 호수가없는 濟州와 연결, 해수와 담수를 함께 이용하는 관광지가 될수있으며 페리로 연결한 榮山湖를 중심으로 남해안관광지원과 濟州를 묶는 종합관광레저권을형성, 국제적수준을갖출수있다는주장이다。이같은부푼꿈에따라榮山湖와인접한 木浦, 靈岩, 務安등지에서 서로 개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같은이유는 榮山湖가 형성되면서 행정구역이 이들3개도시에 조금씩분할돼있기때문 (약도참조)。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木浦쪽의 주장을 보면 儒達山과 三鶴島를 연결시켜 木浦항을 榮山湖와 함께 관광항구로 개발해야 한다는것。또 장차에는 대중공교역센터로 발돋움할 소지를 미리 만들수있다고 부풀어있다。

이같은꿈을 실현시키기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있는데 木浦시 盤玉문화재단상임이사인 趙孝錫씨(60)는 木浦의 재력이 빈약하긴하지만 이미 金모 洪모씨등 유력인사들이 모여 관광호텔이라도 하나세우자고 뜻을모았다고 전했다。또 옛모습과정취를 잃어버린 三鶴島를 되살리자는 시민운동도 벌일계획이다。

木浦에서는 생활권으로보나 행정기관의 재정편의, 항구와 연결되는 조건, 상수도 연결등으로 미루어 木浦市가 개발의 주체가돼야하며 따라서 관광단지가 들어설만한 靈岩郡三湖面호수변을 木浦市로 편입시켜야한다는 주장。이를위해 유달산일주도로등 기본시설도 빨리 만들자고목소리를 높인다。

木浦보다도 재력이 좀 떨어지기는하지만 靈岩쪽도 만만치않다。

靈岩쪽에서는 남해안 일대의 명산이라는 도립공원 月出山을 등산코스로 개발, 호수와연결하면 수렵시설등 온화한 기후와함께 국제적 휴양지로 개발, 농업에만 의존하고있는 현재의면모를 새롭게 바꿀수있다는 설계。

이러한 움직임은 務安쪽도 마찬가지。

또 三湖面수면쪽을 木浦시로 편입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靈岩쪽 주민들은 펄쩍뛰며 반대한다。木浦에서 새로운 욕심이생긴 모양이지만 천만부당하다는것。주민崔政勳씨(42)는『자체개발도힘이없어 못하는 木浦가 턱없는 욕심을 부리지만 행정구역이 靈岩인것은 물론이고 이웃堯島항이 정비돼 대형선박과페리가 취항하면 기왕에지정된 도립공원月出山과 연결시켜야 된다。靈岩땅 사람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목청을 돋운다。

이러한 백가쟁명식 개발꿈이나 신경전은 모두가 3개 행정구역이 접속된 지리조건과 함께 榮山湖에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데서 비롯되는것。

현재 관광객이 몰려드는 하구언의 남쪽 기념비근처는 靈岩郡의 관할지역。

靈岩군은 무질서하게 몰려드는 잡상인을 단속, 한곳에 수용하기위해 기념비에서 1km가량 떨어진곳에 임시휴게소단지를 만들어 우선 건물10개동을세우고 공중변소등을 세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주변조경이나 상수도 시설마저 엄두를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현지 행정당국의입장은 개발의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그 규모에 비추어 지방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없어 국가적차원에서 긴안목의 개발계획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랄뿐이다。

釜山 美國文化院 불

1층全燒 1명死亡 2명火傷

【釜山】18일 하오2시2분께 부산市中區大廳洞2街24 미문화원(원장 체리·암·램크)에서 불이나 1층 사무실 2백평을 모두태우고1시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문화원 1층에서 일어나 때마침 부는 초속 8m의 강한 북동풍을 타고 번졌는데 피해액은 2천만원。

불이 나자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0여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3층에 있던 미국인 메그노아 여사(48)등 2명은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구조됐다。

한편 이화재로 1층도서관안에서 열람중이던 東亞大상경과2년 장덕술군(23·西區槐亭1洞782)이 불에 타숨지고 東亞大회화과 4년 김미숙양(24·東萊區釜谷1洞338)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인근 메리놀병원과 춘해병원에 분산 가료중이나 중태이다。

◇화염에 휩싸인 釜山美문화원。【駢合】

金門·케리부룩社대표 24억不渡후自首…구속

수출회사 金門·주식회사 케리부룩 대표이사 金鍾旭씨(37·서울江南區盤浦洞 盤浦아파트28동402호)가 검찰에 자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에 구속된 金씨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8월말 사이에 당좌계정이 개설돼있는 각은행 앞으로 당좌수표 60장(액면가 24억4천7백74만여원)을 발행한후 부도를 내고 달아났었다。

文化 崔奭祐씨 실천 尹京烈씨 외솔상 결정

제11회 외솔상 수상자로 문화부문에 崔奭祐神父(한국교회사연구소장), 실천부문에 尹京烈씨(慶州박물관 교장)가 결정됐다。

崔신부는 한국교회사와 근대사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尹씨는 지방문화재의 연구보존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문화창달에 이바지한공적으로 상패와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재단법인 외솔회(이사장 白樂濬)는 외솔 崔鉉培선생 12주기를 기념하여 27일하오 4시 서울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마지막 광대

유럽巡廻길 人間文化財 朴季順씨

「탈쓴恨 20년」…空港 나서며 눈물

유럽사람들은 그녀의 손짓과 몸짓의 의미를 알아채기나 할까。

「꼭둑각시 놀음」의 인간문화재 朴季順여사(49·사진·鍾路區崇仁洞398의30)가 유럽 순회공연에 나섰다。

나이 20세에 男寺黨패거리가 돼 옛그제까지 질세기 신고 전국을 유랑하던 여인이 우리의 대표적 민속예능인으로 당당히 세계무대에 데뷔한것。

민속극회 男寺黨을 이끌고 金浦공항을 떠나면서 朴여사는 몹시 울었다。『왜우느냐』는 물음에 그녀는『광대의 恨때문』이라고했다。기자가 朴씨를 처음본것은 탈춤에 몰두했던 대학시절 어느날。『덜리리 두둥둥둥―』 날라리소리와 함께 그녀는 머리에 꽃수건 질끈매고 남색조끼에 男裝을 하고 나타났다。박첨지, 홍동지, 이시미, 피조리등 그녀는 구수하고 앙칼지고 교태스런 목소리를 술술릴를 없이 구사하며 완연한 꼭둑각시 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그녀는 빼어난 광대, 빼어난 꼭둑각시의 달인, 마지막남은男寺黨패거리였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延身隊로 끌려가기직전 탈출, 남의집머슴을 살았고 18세에 남편의 버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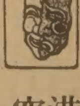
그녀가 男寺黨에 들어간것도 가출한 남편을 찾아 강원도 堤川땅에 간것이 계기였다。거기서 남편아닌 男寺黨상쇠 南雲龍씨(78년작고)를 만나게된것。이때부터 朴씨는 그 패의 일원이 돼 30여명의 광대들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고달픈생활을 시작했다。

광대기질을 타고났는지 징과장구를 잡는법을 어깨너머로 쉽게 익혔으며 南씨의 아내가 된다음부터 남편을 따라 본격적으로 꼭둑각시놀음의 산받기 (인형과 대화자)를하게됐다。

이때부터 지난2년전 인간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반평생을 그는「사당네」로 불리며 비웃음과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가난했고 서러웠다。李朝때의 천민생활이 현대에서도 맥을 잇는 꼴이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병사를 하거나 굶주림에 죽어갔다。그녀는 죽지않기위해 남편과함께 농악대를만들어 전국을돌아다녔다。「꼭둑각시 놀음」이 주요레퍼터리。그는 사기도당하고 극중 홍동지의 나체장면 때문에 경찰에불려 철창신세까지졌다。『도둑질빼고는 안해본것이 없지요』라는게 그녀의 회고다。

그녀는 이번 유럽공연에서 아마 성공할 것이다。그쪽에서도 민중이 웃고 울고 했던 그늘진 오랜과거가 있었으니「恨」에는 東과 西가 없기때문이다。【崔成子기자】



눈·척추까지 찌르는 學生폭력

한심한 不良서클

高校동급생 下半身 마비

中學生뭇매 한쪽눈 失明

【春川】강원春川市孝子洞강원대부고2년 한모군(16)은 지난13일하오 6시께 春川市朝陽洞소재 수복여관앞 골목길에서 같은학교 동급생 전모군(16)등이 낀「진입로」라는 폭력서클학생 10여명으로부터 쇠파이프등의 흉기로뭇매를맞고그자리에서실신했다。

한군은 닷새가 지난 18일 현재 春川시내 인성병원216호실에 입원, 가료중이나 머리를 다섯바늘이나 꿰맸고 척추를 칼에찔려 몸 움을 느끼지못하는 하반신부전마비증세를 보이고있다。

또 강원寧越郡寧越邑上東4里 陸모군(15·모중3년)은 지난달 10일「킹빈7」이라는 중학생 폭력서클의 김모군(15)등 10대 불량학생 5명으로부터 학교부근에서 뭇매를 맞고 왼쪽눈까지 칼에 찔렸다。

陸군은 현재 원주기독병원에 옮겨져 가료중이나 왼쪽눈이 완전실명됐는데 담당의사는 오른쪽눈마저 시력이떨어지는등 심한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新】

江陵大에 새벽도둑

3백30만원 훔쳐가

【江陵】18일새벽2시께 江陵市草堂洞 江陵대학에 도둑이 들어 서무과안에 있는 대형금고를 부수고 이 안에든 현금·수표등 3백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숙직근무를 한 서무과직원 安鍇烈씨(42)에 따르면 이날아침7시께 순시하는도중 2층으로된 대형금고의 뒷부분이 크게 부서져 금고안을 들여다보니 현금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新】

구독신청 배달사고 538-2361

한국일보 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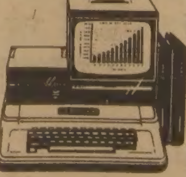
窓가에서 혼자서

丁成秀

온종일 身熱 속을 떠다니다가
저물어가는 窓가에 홀로 기대섰나니
아직도 내 깊은 곳에서
낭랑한 핏소리 울리고
흙먼지 날리는 길 위
아랫도리를 벗은 어린아이가
작은 고추 하나 달랑거리며
어디론지 걸어가고
차도를 달리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무명 조각가의 집 앞에서 기도하는
마리아상 맨발을
몇 마리의 참새가 함께
하늘 한 자락 물어다 덮고
늠름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빈 터에서
구릿빛 근육을 번쩍이며
집 짓는 소리
오늘도 길 건너 金노인 방 전등이
흔들리는 가슴 속에 불을 켜누나。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한국의 妓生 — 節介와 再會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한 男性만을 사랑 할수도 節介를 지킬수도 없었고
侍寢사실 秘密로해 父子가 한 기생을 관계하기도

기생은 한 남자를 영원토록 사랑할수 없을까. 기생에게는 사랑을 쏟을수 없는 것일까. 기생은 官物이므로 어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또 수령의 명령에 따라 언제건 누구와도 시침해야 하므로 절개를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한 남자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一片丹心의 不幸

기생은 신분의 특성때문에 한 남자를 사랑할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절개를 지키기가 어렵고, 절개를 지키도록 보호해 주지도 않았다. 한 남자에게만 애정을 쏟으면 불행해지기 일수였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朴溫이 大同江에서 유람할적에 소를 타고 가는 40대 여인을 만났다. 용모가 매우 아름다왔다. 박온이 장난삼아 왜 소를 타고 가느냐고 물었다. 기생으로 있을때 발을 다쳐 그런다는 것이었다. 박온이 그 여자와 술자리를 같이하고 까닭을 물었다. 그녀는 양쪽 발의 발가락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기생시절에는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 재법 인기가 있었던 탓으로 손님을 자주 모셨다. 그러나 大同察訪과는 한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 때마침 姜씨라는 찰방이 새로 부임해 온다는 소문이 들렸다. 왠지 호기심이 갔다. 그가 오는 날이었다. 남을 움직일만한 풍채는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그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잠시도 찰방에게서 눈이 떠나지 않았다. 환영 잔치가 끝나고 主客이 흩어지자 그 기생은 부지런히 찰방을 따라갔다. 그러나 숙소에 이른 찰방은 밤새도록 잠만 자고 아무말도 건네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기생은 찰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가싶어 부끄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다. 찰방이 그를 불러 밤을 즐겼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난 뒤부터는 음식맛을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 세월이 한 두달 지났다.

그때 兩界都體察使 皇甫仁(?~1453)이 왔다. 하필이면 府使가 그 기생더러 시침하라 하였다. 하룻밤을 지낸 皇甫仁은 姜찰방보다 그 기생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나 기생은 황보인보다 강찰방이 더 좋았다. 그렇지만 부사가 명령하는 바람에 황보인을 따라 關西지방을 돌고 東北界로 들어갔다. 날이 갈수록 황보인은 기생에게 깊은 사랑을 쏟았지만 기생의 마음은 강찰방에게로만 향했다. 그리하여 본부를 거절하고 발끈 성을 냈다. 황보인은 빙그레 웃더니 다시는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본부로 돌아오자 부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부사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부사는 부랴부랴 다른 기생을 뽑아 보냈지만 황보인은 그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할수없이 그 기생을 다시 불러 姜찰방을 잊고 체찰을 잘 모시라고 달래보았지만, 그 기생은 막무가내였다. 책임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 기생을 중벌로 다스렸다. 그 바람에 발가락이 모두 달아나는 부상을 입어 1년이나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결국 그는 강찰방을 사랑한 탓에 불행해졌지만 강찰방도 전근되어가는 바람에 아픈 상처만 싸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靑坡劇談>

·♥節妓禮待

박온이 만난 기생은 한 남자에게 사랑을 쏟았던 탓에 불행을 씹어야 했지만, 한 남자에게 내맡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긴 세월을 허송한 끝에 재회한 기생도 있다.

李陸을 사랑한 승모란이 그였다.

이육은 그의 文集<청파극담>에다 승모란과의 재회사연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이육이 야인 시절에 남쪽에 묻혀 있었는데 진주 기생 승모란과 정염을 살랐었다. 헤어지게 되자 승모란이,

『이제 서울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시며 무슨 벼슬을 얻어 오시겠소. 河東현감이 좋다고는 하나 가족이 있으니 萬戶만 못하겠어요』

했다. 이육이 대답했다.

『이번에 가서 감사가 되어 오려는데 겨우 만호나 수령을 바라느냐.』

이 말을 듣자 승모란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동그라졌다. 얼른 약을 꺼내어 먹이려하자 승모란이 웃었다.

『바보같은 양반아. 당신이 감사가 된다는 말이 비위에 거슬려 배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약을 먹이려드니 바보지 뭐야.』

그 해 봄에 世祖가 溫陽에 거동하여 선비를 뽑는데 이육이 장원을 하여 成均直講을 제수 받고, 7년만에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다시 진주에 갔다. 또 11년이 지나 감사가 되었는데도 승모란은 변함이 없었다.

기생이 情人을 가질수 없었고, 시침사실을 비밀로 해야했던 까닭에(비록 모르고 한 일이지 하지만) 친구, 심지어는 父子가 같은 기생과 관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말썽도 있었지만 기생이 情人을 공개하고 수절하겠노라고 선언하면 (즉 은퇴선언인데 수령이 동의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生計가 막연해지는 위험이 있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수절하겠다는 기생을 가상히 여겨 예우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료(사대부나 선비는 동료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를 대접하는 예의였다.

姜渾(木溪1464~1519)의 情妓인 銀臺仙에 대한 예우가 그런 예다.

강혼이 영남에 갔다가 星山 기생 은대선을 만나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扶桑驛에서 헤어져야 했지만 못내 섭섭하여 부상 驛舍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이별의 아픔을 여러편의 시에 담아 전해 주고 尙州에 이르러서야 이별했다.

상주를 떠난 강혼이 새재에 이르러 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를 만난다. 星山으로 가는 呂선비였다. 강혼은 즉시 편지를 써서 은대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는 짧디 짧고 넓디 넓은 사나이의 뜨거운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였다.

『나와 낭자는 본래 모르는 사이건만 神이 짚이어 宿緣이 있다고 하겠구료. 高山에서 이별한 뒤 땅거미질 무렵에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니 빈집은 고요하고 쓸쓸하며 나숫불은 영롱한데 등잔을 돋우고 꿈짝 아니한채 앉아 외로운 그림자가 호느적거리는 이때의 심정이야 말로 이루 말하기 어렵다. 이튿날 아침에 재를 넘는데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산새들이 지저귀니 마음은 스산하고 뼈가 시리어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다. 낭자의 피리소리나 듣고 설전만 들을수가 있으랴.』

은대선이 강혼의 시와 편지로 병풍을 만들었는데 명필이었으므로 취중에 쓴 글씨의 기새가 마치 용이 [illegible]한듯 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선비들이 남쪽으로 가다가 이 고을을 지나게 되면 들려서 병풍을 보았고, 천개군은 은대선에게 물건을 보내어 위로하였으므로 그는 병풍에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이다. <稗官雜記>

♥高麗의 遺俗

기생과 서한부 사랑을 나누고 헤어져야하는 원칙은 고려 초기에 거슬러 제도화되면서 비롯된 것같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남자들은 고려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생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고려의 어느 郡守는 사랑하는 기생을 두고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정을 두지 못하도록 [illegible]방을 했다. 李仁老(1152~1220)의 <破閑集>에 섬술궂은 관리이야기가 있다.

南州의 樂籍(官妓가 소속된 樂府)에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기생이 있었다.

어느 군수가 그에게 깊은 사랑을 쏟다가 임기 만료로 헤어지게 되었다. 술에 크게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郡을 떠나 몇걸음만 가도 다른 놈이 곧 차지하겠지』

하고는 곧장 촛불로 기생의 볼을 지져 얼굴을 망쳐 놓았다.

그후 榮陽人 鄭襲明이 按察使로 저나가다가 그 기생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 나머지 한쪽의 雲藍을 꺼내 손수 시 한 수를 써주었다.

『여러 꽃떨기 속에 어여쁜 모양 산뜻한데/홀연히 狂風을 입어 붉은 빛을 덜었도다./獺髓로도 玉같은 볼을 고칠 수가 없나니/五陵公子를 끝없이 슬프게 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은후 지나는 사람마다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으므로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면, 기생과의 사랑은 누구라도 불행으로 끝나는가.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를 그런 날을 무턱대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다. 기생이 임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가 기생을 데리고 가거나, 도망을 방조하면 파직되고 身分을 거두었으므로 기생이 남몰래 도망하여 임을 따라갔다. 그런 실례가 있다.

♥妓生의 도망

咸東原이 젊었을 적에 화류계를 방탕하였었다. 그렇지만 직무에 임해서는 敬謹하고 善處하여 名宰相이 되고 封君까지 되었다. 호남감사 재임시에 善政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大司憲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그도 사랑하는 기생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는 기생을 두고 떠나기가 싫어 넌지시 기생에게 號牌를 주고 밤에 몰래 따라오라 이르고 먼저 길을 떠났다. 며칠후 기생이 몰래 떠나지 않고 부윤을 찾아가 사연을 고했다. 당시 부윤은 李瓘이었는데 성품이 淸高하고 급한 사람이라 대로하여 『대사헌이 어찌 기생을 데리고 갈리가 있는가. 네말이 거짓이다』 나무랐다. 이 말에 기생이 함동원의 호패를 내보였다. 그러자 이언이 땅에 침을 칵 뱉는다.

『내가 함동원을 節士라 칭송하였는데 지금 보니 下品이로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함동원을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이언을 비웃었다. <慵齋叢話>

왜냐하면 기생을 데려가지 못하는 습을 어기지 않게 하기위하여 기생의 도망을 모른체하고, 中央官吏로 영전하는 이에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로울뿐아니라 훗날 자신도 그런 경험을 되밟을지 모르므로 불문에 붙였었는데 유독 이언만이 끝은체하므로 비웃은 것이다.

실제로는 많은 관리가 禁法을 어기고 기생을 데려다가 첩을 삼았다.

<계속>

性생활과 更年期는 無關

美교수、46~71세 남녀 조사

인간의 성생활 능력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감퇴경향을 보인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같은 사실은 美國 듀크대학 심리학 교수 린다・K・조지및 스테폰・J・웨이너가 중년기를 넘긴 46세에서 71세에 이르는 기혼남녀 2백78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 68년에서 74년까지 2년에 1회씩 4회 실시한 성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냈다.

연구팀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8%(1백61명)가 4회에 걸친 조사때마다 성생활 능력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나머지 20%(56명)만이 감퇴됐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갱년기 이후의 성생활 능력은 평소 성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반영하는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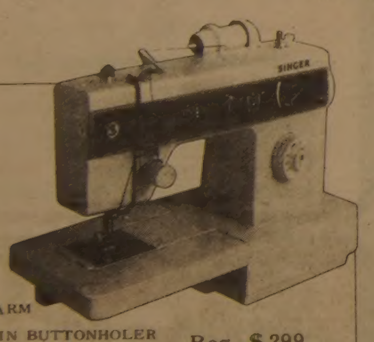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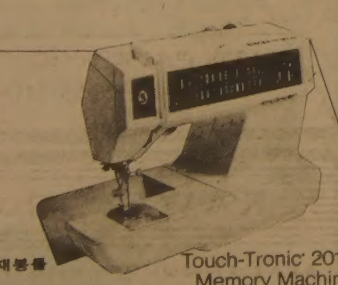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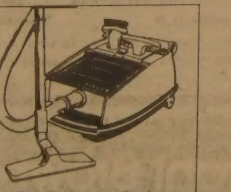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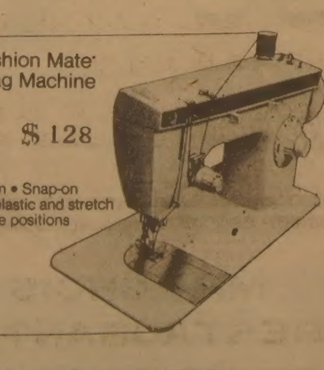
★싱거 회사중 이곳에서만 교포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강습★

— 기간 : 3월12일~3월말까지 —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CH
Reg. $299
Save $75


컴퓨터식 재봉틀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 95
SPEC. $111. 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툰 업(TUNE-UP)
SINGER FAMOUS 4STEPS TUNE UP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有名人 서울의 休日

鄭明和씨 夫君 具三悅씨는

"敎皇저격" 특종한 名특파원

◇부인 鄭明和씨의 자선연주회에 함께 온 具三悅씨。AP통신의 로마특파원인 그는 교황의 한국방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첼리스트 鄭明和씨는 알아도 그녀의 남편인 具三悅씨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의 세계에서 선 입장은 서로 엇비슷한데가 있다。모두 국제적인 성가를 떨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AP통신의 중견 저널리스트로 로마교황청을 출입하고, 교황과는 각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具씨가 지난주 서울을 다녀갔다。부인의 자선음악연주에 즈음한 휴가의 성격을 띤 방문이었다。

81년 5월 14일。평소보다는 약간 늦은 오후5시께 具씨는 직장을 나서 어느 화랑앞 주차장에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때마침 바이얼리니스트이자 처제이기도한 鄭京和씨가 로마를 방문중이었는데, 이날 아침 두 부부가 그녀에게 그림 한폭을 사서 선사키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때 저만큼서 누군가가 황급히 손을 흔들면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부인과 처제였다。얼핏 불길한 생각이 든 그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차를 몰았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거의 동시였다。두 사람이 합창하듯 소리를 질렀다。

『교황이 총에 맞았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具씨는 광장 쪽을 향해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어디랄것은 물으나 마나였다。이미 교황의 그 날 일정을 훤히 알고있는 그로서는 그럴 필요도 시간도 없었다。

聖베드로 광장은 그 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사고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신도들의 울부짖는 통곡속에서 경찰들의 호각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곧 이어 다급한 앰뷸런스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수행 주교로부터 사고순간을 목격한 일반 신도들의 음성에 이르기까지 닥치는대로 녹음기에 담았다。그리고는 지국사무실로 쏜살 같이 달렸다。

이어 그는 급전을 쳤다。〈오늘 하오5시21분,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성베드로광장의 주례 일반 접견식에 참석하기 직전 무장괴한 2명으로부터 3발의 총탄세례를 받고 쓰러졌다。〉

저격순간의 생생한 목격담과 울부짖는 현장녹음이 본사와 워싱턴에 동시에 날아갔다。그 한참뒤에야 다른 통신들이 허겁지겁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날 具씨의 생방송은 타사에 비해 무려 2시간이나 빠른 것이었다。물론 그로서는 통쾌한 스쿠프(특종)였고, 또 한번 그에게 名聲을 안겨준 계기가 됐다。

「새뮤얼·쿠」(Samuel Koo)。이것은 具씨의 AP통신 바이 라인(집필기자 이름)이다。

우리나이로 올해 42세。서울 운니동에서 故人이 된 具興南씨와 지금은 뉴욕에 살고있는 朴禰吉여사(65)와의 사이 2남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具興南씨는 자유당시절 3대와 4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당시 어머니 朴씨는 서울 女大교수로 재직중이었다。

4·19의거가 있던 60년도, 具씨는 경기고교를 졸업했다。이와 때를 함께해 그는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美8軍內소재)에 원서를 넣었다。

입학이 허가된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어수업을 쌓아갔다。중고시절 이미 어학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그의 영어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어느정도 영어엔 자신이 붙었다고 느껴졌을 무렵 이번엔 高大에 편입원서를 냈다。法大行政科였다。

大學졸업을 1년여 앞뒀을 무렵인 63년12월 英字紙 코리어 헤럴드에 입사했다。여기서 그는 국회출입기자가 됐다。그 옛날 부친이 사자후를 토했던 議政壇上을 이번엔 신문기자의 입장에서 이를 취재하는 몸이 된 것이다。국회에서 1년, 다시 외무부로 옮겨 1년이 지났을 무렵인 66년11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다。당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외무부장관 李東元씨의 수행기자로서였다。

한참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을즈음 서울로부터의 비보가 날아들었다。〈父死亡〉。

크게 상심한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대신 그만 뉴욕에 주저앉고 말았다。그리고는 이듬해9월 콜럼비아대학신문대학원에 장학금을 얻어 입학을 했다。

"敎皇의 서울방문은 精神的 올림픽으로 생각하죠"

외무장관수행 美國갔다 주저앉아 AP入社

68년 이 학교를 졸업한 그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 AP통신사에 입사했다。배치된 곳은 방송뉴스부였다。이것은 해외근무가 희망이었던 그로선 약간은 실망적이었다。그러나 이 부서에서의 근무는 훗날 초기의 用語고충을 덜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왜냐하면 방송뉴스부란 기자들이 쓴 기사를 방송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곳으로 통상 5백자정도의 기사를 50자정도로 줄이는게 상례였다。또 방송체는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관용어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이들 어구를 그는 여기서 제대로 배운 셈이었던 것이다。

편집인으로서 어느정도 자신이 생겼을때 그는 사장에게 자청을 했다。외근기자가 되고싶다는 그의 소망은 곧 이뤄졌다。평소 실력과 성실도를 인정한 회사측은 그를 유엔본부특파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때부터 그는 처음의 해외근무희망을 사실상 포기한채 유엔에서 평생을 보내다시피한 大記者 윌리엄·오티스씨와 함께 자신이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뉴욕 용커스 근처의 도브스페리에 집을 산것은 그 훨씬 뒤였다。

그 얼마뒤 사장이 불러서 갔다。내용은 『로마로 가라』는 것이었다。뜻밖의 전출이었던 것이다。78년 9월 그는 최초의 로마행 비행기를 탔다。당시 로마의 기상은 잔뜩 찌푸려져있었다。부임 직전 바오로 6세가 서거했고, 그한달만에 요한·바오로 1세가 또 세상을 떠나는 북새통에서 그는 현지도착즉시 교황의 장례부터 기사송고를 떠맡아야 했다。

앞서의 교황저격사건특종을 비롯, 이탈리아지진, 교황의 동남아순방 수행등에서 자신의 취재능력을 십분발휘하고도 남았다。하지만 그에게도 애로는 있었다。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따라서 심층접근이 어려운 교황청이고 보면 기사로 인한 시비가 적잖게 발발하곤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현지의 기자들 사이에선 『교황청 관련기사는 되도록 안쓰는쪽이 속편하다』는 자조의 말이 자주 뱉어지곤 한다는것이다。또 『교황은 좋아해도 교황청은 싫어한다』는 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최근 그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것이 있다。교황의 한국방문에 관해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그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긴하다。그러나 교황의 비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느 한시각 잊을수가 없는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황을 꼭 한번 모셔야한다』는 그의 열망은 국내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그래서 그는 『99%가 가톨릭신자인 필리핀도 교황초대를 위해 탄원과 편지, 외교적 교섭등 거국적으로 움직였던 사실』을 지적, 『우리도 그 이상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가 그처럼 그의 방한을 바라는 것은 이유가 있읍니다。올림픽이 몸으로 뛰는 것이라면 교황방문은 정신적 올림픽으로 생각해도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더 유럽근무를 원한다는 具三悅씨—。그에겐 71년 뉴욕에서 있은 경기고 동문파티에서 잃어버린 귀고리를 찾아준것이 인연이 돼 결혼한 부인 鄭여사와의 사이에 꽃별(7)과 꽃샘(4)등 두 딸이 있다。

할리우드 最新情報

암으로 쇠약할대로 쇠약해져 있으면서도 암을 테마로한 영화 촬영에 생명을 걸고 있는 名女優 잉그리드·버그먼, 檢屍 당국이 발표한 女優 내텔리·우드의 익사說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美週刊誌들, 혈액형은 父性을 인정하는 열쇠라고 할수 없다는 판결 등 화제 만발한 할리우드의 최신정보를 모아봤다。

♣내탤리·우드의 疑惑

작년 11월 캘리포니아주의 카다리나섬에서 익사한 내텔리·우드(43)에 관해서 美週刊誌들은 갖가지 추측들을 하고있다。1962년 마릴린·먼로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미스터리에 버금하는 미스터리라고까지 떠돌고있는 것이다。

엔콰이어誌는 심장학, 약학, 병리학, 알콜중독치료의 권위자들을 총동원해서 내텔리·우드의 檢屍보고를 검토, 그녀는 익사한 것이 아니라 常用하고 있던 진정제 등의 약제와 알콜의 부작용에 따른 心臟不整脈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면서 로스앤젤레스州 檢屍당국이 발표한 익사說에 정면 대결하고 있다。

◇내텔리의 溺死說에 의문점이 많아 떠들썩하다。

의문점을 헤쳐보면 어두운 바다는 싫다고 했던 내텔리가 나이트 가운차림으로 바다에 나간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해상에서 살려 달라는 비명이 25분간이나 계속됐는데 그 보고를 檢屍당국이 무시한것은 어떤 이유일까。그리고 내텔리의 죽음은 익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익사라고 한것은 어떤 까닭일까 하고 추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측을 종합해 보면 내텔리의 죽음은 직접적인것은 아니더라도 복잡하고 착잡한 남녀관계와 알콜, 약제, 섹스가 그 원인으로 되어있는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스타誌는 내텔리의 死因은 영원한 비밀일까 라고 대서특필했고, 그로프誌는 『내텔리의 죽음을 싸고 도는 중심인물은 내텔리와 「프레인스톰」에서 共演했던 배우 크리스토퍼·워켄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 그 깊고 깊은 내막은 오리무중이다。

두乳房절제한 잉그릿버그만 癌테마 映畵서 마지막 熱演

♣버그먼의 鬪病

이스라엘에서 「골다 라고 하는 女子」를 촬영중인 잉그리드·버그먼(66)은 갑자기 암의 재발로 몸이 쇠약할대로 약해지고 있으나 생명을 걸고 버티고 있다。

美 엔콰이어誌에 따르면 버그먼은 두 자녀의 만류도 듣지 않고 하루 14시간, 1週 6일간씩 혹서속에서 로케를 하고 있다。

병의 증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버그먼은 자기가 나오는 장면에 최선을 다해 촬영에 나서고 있는것이다。

이 영화는 암과 12년간 싸우다 1978년 사망한 이스라엘의 女首相 골다·메이어의 傳記。버그먼 자신도 8년전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떼어 냈고 3년전에는 하나 남은 유방마저 절제했다。그녀가 암과 싸우는 이 영화에 거는 의욕은 대단하다。촬영 도중 버그먼의 오른 팔이 부어 오르고 얼굴색도 몰라볼 정도로 파리해져 갔다。

버그먼은 1940년대에 이름을 날렸던 스웨덴 女優。「카사블랑카」「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스燈」에서의 명연기로 인기를 끌었고 사상 유례없이 세번이나 아카데미상을 탔다。작년에 日本에서 공개된 「가을의 소나타」는 버그먼 최고의 연기라고까지 평을 받기도 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영화는 버그먼이 두번째의 입원 직전에 찍은 것으로 주변에선 최후의 작품이라고 했지만 암이라는 테마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영화야말로 최후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버그먼은 늘 자기의 묘비銘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연기했다」고 기록해 주었으면하는 말을 버릇처럼 하고 있다。

워렌비티 親舊에 愛人뺏겨

♣워렌·비티의 三角관계

배우 워렌·비티가 제작·감독을 맡고 공동각본·주연까지 해낸 新作「레즈」가 뉴욕 영화비평가 그룹으로부터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중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에 참가했던 미국기자 재크·리드와 작가 지망의 여성 루이즈·브라이안트의 實話를 드라머로 꾸민 작품。

이 작품에서 비티는 리드역을 맡았다。브라이언트 역은 당시 비티의 걸 프렌드였던 다이언·키트가 맡았는데 키트는 촬영도중 共演했던 재크·니콜슨과 의기 투합한 비티와 헤어졌다。

비티는 78년도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주연여우상을 타거 위해 할리우드에 온 키튼에 매료됐었다。비티는 그뒤 키튼이 살고있는 뉴욕으로 옮겨가 아파트를 빌 정도로 열을 올렸지만 키튼은 비티의 求婚에 자유롭게 있고싶다고 회피했다。

한편 화제의 영화 「레즈」는 70년말 세계를 휩쓸었던 사회주의 바람 가운데에서 남녀의 사랑을 다뤘는데 서로를 속박하지 않을것을 확인한다는 러브스토리—。워렌과 키트의 관계와 아주 똑같다。

영화 제작중에 공연자와 사랑에 빠지는 스타들은 많지만 키튼과의 사랑으로 멀어진 비티와 니콜슨은 오래전부터 친구사이였다。

세사람의 관계는 그뒤 다서 원만한 상태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워렌·비티。

에버렛 親子확인 굴레벗고

♣親子確認에 새判例

「95% 어린아이의 아버지」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던 親子 확인 소송에서 피고측이 오히려 勝訴, 아버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렸다。

화제의 주인공은 TV시리즈 「의사 캐논」에서 성실한 의사로 알려진 차트·에버레트(45)。8년전 그가 주연을 맡고 있는 촬영소의 문앞에 어린아이가 바구니에 담긴 채 버려졌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이 아기의 아버지는 차트·에버레트다』라고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뒤에 알고 보니 아기의 엄마는 같은 시리즈 작품에서 엑스트러로 출연했던 女優 서리·스코트。

이 당시 소송에서는 에버레트가 勝訴하고, 다음번 소송에선 화해 중개자가 개입돼 『에버레트가 아버지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4백달러씩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이어 8년뒤인 현재 또다시 혈액형을 내세워 새로이 아버지가 확실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던것이다。

문제의 아기 유기사건이 일어난 1972년 무렵의 에버레트는 인기 절정으로 TV시리즈의 제작회사인 MGM에서는 스캔들을 두려워 해서 무마공작을 편 일도 있었다。

이 재판이 꼬리를 끄는 동안, 제출된 「호감이 가지않는 人物」로서 미국에서 추방됐다。

내탤리·우드의 死因은 乱雜한 섹스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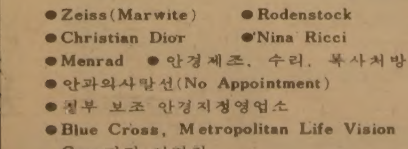
美 週刊誌들 갖가지 反證제시…當局 溺死說에 正面대결

◇「가을의 소나타」에서 명연기를 보인 잉그리드·버그먼。그녀는 암의 고통을 이기며 이 영화에 출연했다。<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좌측이 버그먼>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업무국) (416)533·2361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일보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립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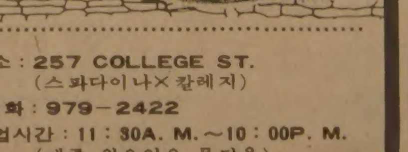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 진미의 해산물 요리
- 국수, 야채전문
-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30A. M.~10: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 11만불 가격 :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더럽혀진 「國民榮譽賞 구시껜」의 全貌

緊急연재 「복싱毒物」第2彈　이것이 眞相이다 <제2회>

"挑戰者를 펄먹다" "藥品얼마든지 돈이면 다돼"

빈틈없는 諜報網

◇汚辱의 英雄이 된 黃金의 일 「구시껜·요오꼬」.

【東京=宋孝彬특파원】金龍鉉에 대한 藥物투입음모사건을 파헤쳐 일본 복싱계에 충격을 준 週刊文春은 전호에 이어 18일字에서 프로복싱史上 유례없이 13차례의 챔피언방어에 성공한 구시껜·요오꼬(具志堅用高)의 배후에도 독물투입공작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잡지는 지난78년5월7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렸던 챔피언 구시껜과 파나마의 리오스와의 대전에서 가네히라(金平)가 리오스가 묵고있는 호텔요리사를 매수, 그가 먹는 스테이크 소스속에 독물을 넣어 리오스를 패하게했다고 밝히고 그 댓가로 요리사에게 10만엔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가네히라는 이밖에도 8차방어전때는 파나마의 로페즈와、9회방어전때는 같은 파나마의 페드로사、11차때는 金龍鉉、12차 방어전때는 칠레의 바르가스에게 약물 투입을 기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시껜의 경우 과연 약물투입 음모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세모꼴로 싼 하얀 가루藥 고기 구우면서 뿌려

세계신기록인 13차방어전에 성공한 不世出의 챔피언、한 천재복서、국민영예상을 받을만한 구시껜의 영광뒤에는 독물투입이란 汚辱이 얼룩져 있다。

약물 음모가 성공한것은 78년5월7일 구시껜의 5차방어전인 파나마의 리오스와의 대전때였다。리오스는 WBA세계주니어플라이급 초대챔피언。곡예사처럼 가벼운 푸트워에다 날쌘 몸놀림으로 오른쪽 스트레이트의 위력이 뛰어났다。구시껜과 리오스의 첫대전은 77년1월30일 東京서 열렸다。

76년10월「리틀포먼」이란 애칭을 가진 도미니카의 구스만으로부터 왕좌를 빼앗은후 최초의 혈투장으로 구시껜을 피로 물들인 첫방어전으로 고전을 거듭했다。3회전에 들어가자 상대의 강타에 못이겨 프로복서가 된후 첫 다운을 빼앗기기도 했다。

비교적 냉정한 입장에서 보도한 일부 매스컴은 「구시껜은 몸집이 작은 리오스의 속공에 휘말려 불의의 다운을 빼기는등 컨디션이 아주 나빴다」고 썼다。

◇「週刊文春」誌와 對決성명을 公表한 藥物파動의 主人公 가네히라前會長이 報道陣을 피해 車를 급히 타고 사라지고있다。

목숨건 金平부하 料理長 꾀어 "日本사람끼리 뭘…"세뇌工作

약물投入 주스냐 샐러드냐 과일이냐

왼쪽 눈의 출혈을 막기위해서 동여맨 수건이 퍼렇게 멍든 눈두덩이 위까지 내려와 방심상태에 있던 구시껜을 눌러 이겼다고 생각했던 리오스측의 세컨드가 리오스를 얼싸안고 링 위에서 춤을 췄지만 판정은 2대1로 구시껜의 승리였다。

리오스는 울음을 터뜨렸고 매니저는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소리치며 WBA에 제소하겠다고 외쳤다。그후 리오스는 2전2승、인연이 있는 5차방어전이 히로시마에서 열려 리오스는 구시껜에게 재도전하게 됐다。구시껜은 지난번 시합에서 억지로 이겨 리오스와의 대전에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일본에 온 리오스일행은 교에이(協榮)쪽에서 알선해준 히로시마시내의 C비즈니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타이틀전을 사흘 앞두고 구석진 호텔방에 교에이 관계자를 불러 세운 가네히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이런것이 있다。내가 시험해봤지만 별로 나쁜것이 아니다。수면제와 같이 푹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가뿐하고 몸도 가볍다。그러나 스태미너가 없어지지…』

가네히라가 꺼낸 세모꼴로 접힌 약봉지에는 연필로 10·30、빨간볼펜으로 10·50등이 씌어져 있었다。

가네히라는 陰謀성공하자 점점 手法 악랄

藥物攻略 배후엔 스페인語 능통의 親舊

가네히라는 『이 호텔의 요리사가 술을 먹는가。일이 끝난뒤 데리고나와 술을 먹이자。그리고 친해주자』고 말했다고 교에이관계자는 털어놨다。최초에는 어떻든 이 분말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문제부터 출발했다。

그 당시의 가네히라 회장의 말은 호텔요리사를 구워삶아 분말을 요리속에 쉬울수 없는가라는 암시였다。

물위에 뛰노는 고기처럼 재빠른 리오스의 몸놀림을 막기위해 구시껜의 주먹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藥物방법밖에는 없는것으로 판단했던것이다。

스태프의 하나가 그날 밤 호텔요리장을 꾀어내는데 성공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같아서 미안하다。선수는 減量때문에 먹는것이 까다로운데… 표를 줄테니 구경이나 와라。물론 일본사람이 이기는것이 좋지않느냐。구시껜이 승리하기 위해 당신의 정보력과、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마주한것이다。예를 들면 리오스가 무슨 음식을 얼마만큼 먹었나등 하찮은 얘기라도 좋다。』

요리장은 일본사람끼리라는 말에 드디어 OK했다。

다음날 두번째 약속을 했을때 가네히라는 스태프들에게 『자、오늘 약속한 술집에 도착했을때 나에게 전화해라。시치미를 떼고 말이야。나는 우연히 들른것처럼 그곳에 갈테니까…』라고 말했다。

약속한 스낵바는 요리장이 만나자고 했던곳이다。요리장이라야 30이 갓 넘은 자로 가네히라를 보자 긴장해서 『네、네』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리오스는 뭘 먹나、주스는 좋아하나、역시 일본인은 야마또 다마시(大和魂)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결과론이지만 요리장은 가네히라측의 공작에 너무도 쉽게 말려든것이다。여러가지 계략이 세워졌지만 분말을 대량으로 주스에 넣으면 들킬 염려가 컸다。

샐러드의 드레싱에 넣느냐、아니면 과일속에 넣느냐、그러나 결국은 요리장의 발상대로 스테이크에 치는 소스에 약물을 넣기로 결정했다。이렇게하면 절대로 들킬 염려가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렇지만 어떤 스테이크가 리오스에게 가느냐가 큰 문제였다。이런 가네히라의 근심에 요리장은 주문을 받을때 미디엄이냐 웰던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리오스가 주문하는 스테이크는 분명히 확인할수 있다고 대답했다。

가네히라가 요리장에게 건네준 약봉지는 2회분 2봉지였다。시합 전날밤과 당일 계체량후의 식사후에 넣는 것이다。나머지는 교에이쪽 사람이 간직했다。요리장에게 입막음으로 10만엔을 주었다。교에이도장관계자는 『그 요리장은 이 음모에 아주 진지하게 가담해주었다。2회분의 약은 확실히 사용됐을 것이다。회장자신도 자신이 생각해도 히로시마의 일은 써었다』고 전했다。

<삽화·權大雄>

어쨌든 시합당일 리오스는 후반에 들어서자 다리를 못썼고 상체만이 앞으로 나가 구시껜의 클린히트가 계속 날아왔다。

시합이 끝나자 리오스의 매니저는 『이상하다。이런 선수가 아닌데…』라면서 분노했다。

역시 약물의 효과는 적중한것으로 본다。

이 시합에서 리오스의 잽싼 몸놀림이 후반에서 떨어졌고 스태미너가 현저하게 소모돼 13회 2분59초만에 코너에 몰려 무참하게 레프리 스톱을 선언당했다。

승자인 구시껜의 몰골도 처참했다。두눈은 찢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다른사람으로 변해있었다。리오스가 한 라운드만 견뎌냈다면 거꾸로 구시껜이 레프리 스톱 당했을지도 몰랐던 시합이었다。

週刊文春의 특별취재반은 히로시마 호텔의 요리장과 만나 극적 인터뷰에 성공했다。요리장은 大阪출신으로 36세였다。그와 만난시간은 45분간이었다。요리장은 리오스의 인상부터 첫 말문을 열었다。

리오스는 자신의 이빨을 가리키며 시합에이기면 금이빨을 새로 해넣고 파나마로 돌아가겠다고 떠벌렸다고 말했다。그는 매일 고기만 먹었다。거의 2백g의 살론 구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구워 아침부터 먹어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거기에다 샐러드와 과일도 매일 먹었다。식당에는 리오스 혼자 오거나 세컨드와 함께 올때도 있었다。인터뷰의 골자로 돌어가보자。

ㅡ시합전날 교에이도장관계자와 술먹은 적있느냐。

▲마신일이있다。누군가가 와서 핫쪼호리(八丁掘)에 마시러 갔다。

ㅡ그자리에서 가네히라회장을 소개받았나。

▲이름은 몰랐지만 구시껜이 이겼을때 링위에 올라와 그를 얼싸안던 사람이었다。

ㅡ그때 리오스의 식사에 약물을 넣어달라고 부탁받았는가。

▲약물이요、그러거 누가 말하더냐。그런사실없다。다만 어떤음식을 리오스가 먹고 마시는가를 물었다。약물같은 얘기는 없었다。

취재반이 확실한 증언자의 말을 거듭 전하자 얼마간 생각하더니「절대익명」을 요구하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다。

ㅡ그렇다면 확실히 얘기하겠다。공작사실은 있었다。당신이 말한그대로이다。약에관한 얘기는 로비에서 들었다。호텔의 방에서 이것조금하면서 약을 건네주었다。병원에 가면 흔히 주는 삼각으로 싼 흰분말이었다。

ㅡ어떻게 사용했나。

▲약은 스테이크를 구울때 사용했다。고기를 구우면서 뿌렸다。

ㅡ한봉지를 모두다 뿌렸는가。

▲전부 뿌리지 않았다。양심에 가책을받아 뿌리면서도 리오스가 이걸먹고힘이 조금씩 빠지겠구나하고 생각하기도했다。정말로 약을 전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부탁한 사람이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때문에 거절할수 없었다。

ㅡ그렇다면 리오스가 확실히 먹었는가。

▲확실히 먹었다。주방에서 굽는정도로 누가 시킨것인가를 확실히 구분할수 있기 때문이다。

ㅡ그후 가네히라가 약을 넣었는가를 물어온적이 있었나。

▲없었다。돈은 10만엔 받았다。이젠 그만하자。

구시껜은 승리했고 그의 뜻이 어쨌든 그의배후에이처럼 비열한 모략공작이 숨어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승리의훈장은 오욕의 영광이라고 할수있다。

鄭相一은 10kg이상 減量으로 고통

"情報 더 달라" "로페즈는 설사 심하다…" 提報

가네히라회장의음모는리오스와의對戰으로끝난것은 아니다。히로시마사건이후、그의 약물투입공작음모는 더욱 교묘해지고 가중해 졌다。

생각하면 리오스는 減量에 고통받지않은 선수였다。그래서 다행히 요리장을매수하는 공작에 성공했던것이다。그렇지만 시합전에 스테이크를 마구먹는 복서는 예외였다。

앞으로 계속 요리장을 매수한다는것도 쉬운일은 아니다。섣불리 아무나 시킬수는 없는것이다。그래서상대방 선수에게 약 먹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했다。

구시껜의 시합이 끝난후 회장은 외부의 인물에 눈을 돌렸다。내생각으로는히로시마에서의 약의 출처는 X인것 같았다。

현장을 보지못해 잘모르나 그후의 시합에서도 약물공작을 X를 통해 한것으로 알고있다。X는 교에이관계자는 아니다。그러나 가네히라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임은 틀림없다。

약물에 관한 지식도 상당했고 스페인말도 잘했다。교에이도장을 대신해서 약물공작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히로시마 방어전 다음해 있었던 78년10월15일 東京서 열렸던 鄭相一과의 6차방어전 때부터였다。

취재팀은 X와의 인터뷰도 성공했다。그는 『히로시마 사건은 전혀모르겠다。말이 나로 부터 나왔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다。당시 나는 가네히라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東京의 鄭相一과의 시합때부터 도전자의 측근에서 일했다。그당시 가네히라로부터 아무런 의뢰도 받지 않았다。그때 鄭相一은 10kg이상의 감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X의 말로는 7차방어전을 거쳐 파나마의 로페즈와의 8차방어전이 열렸던 79년4월8일 부터였다。교에이초청에인사차그에게들렀을때가네히라는『정보가 될것을 달라』고 부탁했었다。어떤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무게는 어떤가라는 그런 질문들이었다。

로페즈는 그때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다。아침에 차가운 귤과 덮밥을 세그릇이나 먹어 배탈이 나 매니저가 설사멎는 약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왔다。

경기장에서 가네히라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주자 싱글벙글하면서 『그래、그렇다면 보디를 두들기면 되겠다』고하며 좋아했다。

그는 내 두손을 마주잡고 『수고했다』고 마치 내가 설사를 시킨것처럼 떠들어댔다。

로페즈는 아주 강했다。사이드 스텝이 교묘해서 극심한 설사에도 불구하고 완강했다。6회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구시껜을 두드렸다。설사인지 아니면 구시껜의 계속적인 보디블로 때문인지 7회부터는 다리가 말을 듣지않더니 결과적으로 7회에 구시껜이 KO勝했다。6연속 KO勝의 퍼레이드였다。X에서 보면 이시합은 가네히라에 의한 설사의 힌트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구체적인약물투입의뢰를받은것은 北九州에서 열렸던 9차방어전인 파나마의 페드로사와의 싸움에서였다。

『당신은 외국에 갔을때 여러가지 방해를 받았겠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체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에비하라가 64년 방콕에 갔을때(그해1월23일 킹·페치에 첫방어실패) 매수된 호텔보이가 무두속에 가성소다를 넣어 화상을 입어서 경기중에 다리를 쓸수 없게됐다。

『그놈들 더러운 놈들이다。일본사람은 생각보다 무르고 사람이 너무좋다。세계타이틀전을 엮어 이기려면 발견되지 않는한 뭔가하는것이 프로다。』

강한놈이 이기는것은 아마추어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놈이 결국은 강한자인것이다。

X의 기억으로는 과일이나 주스를 써서 공략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무리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요리사들을 돈으로 구워삶을수는 없겠는가고 물었다。

『팬들에겐 구시껜·요오꼬야말로 하나님이다。「야마또 다마시」정신을 들고나오면 그가 일본인인한 아무라도 맡아서 해줄것이다』고 말했다。

가네히라 회장은 한참 듣고나서 『염려없다。인간이란 돈으로 뭐든할수있는것』이라며 껄껄 웃었다。

X는 결국 약을 넣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약물공작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것이 그의 증언이었다。

정말 할 생각은 없었으나 가네히라 회장쪽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청해오는 바람에 하겠다고 대답했다。그러나 운이 좋았던지 약을 실제 먹이지않고서도 페드로사는 경기당일에도 체중이 전혀 줄어들지않고 심한 변비로 무척고생을했다。그래서 탄산마그네슘을 물에 타서 먹였다。

이같은 일은 매니저와 페드로사 본인의 승낙을 받고서야 한것이다。

결과적으로 페드로사의 체중은 떨어졌고 심한 탈수증세로 비틀거렸다。

기자들과 회견을 할때 뒤에서 누가 받쳐주지 않았던들 그는 넘어졌을것이다。그는 그만큼 허약해져있었던 것이다。

가네히라회장은 집요하게 약을 먹였는가 하고 물었다。계속 설사를 하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자 『하、하、하 그렇다면 보디를 치면 그만이겠다』고 득의만면하게 소리높여 깔깔댔다。별일없이 승리는 따놓은것과 다름없다는듯 의기양양했다。

경기는 구시껜·요오꼬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가네히라회장은 내손을두손으로 꽉 잡고는 『잘 해주었어。고맙다』고 연방 말했다。승리감에 넘친 웃음으로 얼굴전체가 환한 달덩이 같았다。

그때 비용으로 X는 70만엔을 받았다。

東京 10차방어전때도 약물을 먹여달라는 부탁이 왔다。

그러나 그때는 약을 넣었다고만 말했을뿐 실제로 투입하지는 않았다。

어떻게든 이길 상대였기 때문이다。오오사까에서 열렸던 11차방어전의 도전자는 한국의 강호 金龍鉉이었다。

도까시끼戰에서 사용한오렌지투입사건의 피해자이기도한 도전자였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金龍鉉은 마치 싸울생각이 없는듯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 로드웍도 안하고 공개연습도 제멋대로 했다。

가네히라회장으로 부터의 독물공작의뢰는 어느때보다도 치열 하고 또 집요했다。

그때 X는 가네히라회장에게 金이 먹는 음식에 독물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강한놈 이기는건 아마 프로는 이기는놈이 强"

팬은 구시껜을 하나님으로 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무척 컨디션이 나쁜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金이 자기의 컨디션이 나쁜것처럼 외부에 보였던것은 철저한 위장이었다。

의외로 세찼던 金은 15라운드까지 끌고가면서 구시껜을 철저히 괴롭혔고 패언을 실컷 두들겼다。

경기를 끝낸후 예상밖의 고전에 낭패한 가네히라측은 X를 불러 무자비하게 힐난했다。

『그때 내가 시키는데로 金에게 약을 먹였으면 좋았을걸 당신말대로 하다가 하마터면 혼날뻔 했다。당신은 아직도 정정한 프로가 못돼。』

승승장구의 가도를 달리던 구시껜·요오꼬의 12차전 상대는 칠레의 터프가이 바르가스였다。

구시껜이 이제껏 상대했던 어느 복서보다 최강의 도전자로 알려졌던 바르가스는 감량에 고통없이 콜라를 하루에 30병씩이나 물마시듯 마셔대는 괴물이었다。

X의 말을 들어보면 바르가스와 함께온 칠레의사가 가져온 아미노산과 비타민C 그리고 단백질정제를 사과와 딸기 그리고 오렌지、우유와함께 섞은 주스를 바르가스는 자주 마셨다고 한다。

이것을 주치의나 트레이너도 다들 즐겨 마셨다。코치나 늘 잡역 역할을 하는것 처럼 보이는 교에이쪽 사람이 때때로 나타나서는 무언가 넣는 시늉을 하기도 한 일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바르가스는얼마든지 욕심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이지만 그대신 변소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변을 자주봤다。

그때 마침 가네히라가바르가스는 변소에 자주 가느냐고 물어와 그렇다고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고 물길래 하루에 6~7차례라고 하자 박장대소 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엎치락덮치락하는 어느 코미디의 한 장면을 보는것 같았다。

공이울렸다。관중들은 모두가 두손에 땀을 흘리며 지켜보았지만 결국 구시껜이 다시 8회에 KO로 이겼다。

플라이급의 세계신기록을 수립、국민적인 영웅이 된 것이다。

"야마또精神 들먹이면 누구든 이일 맡아줄것"

구시껜이 苦戰하자 '藥은 내가 준비'

그러나 이때 X는 구시껜이 잘한것보다는 바르가스의 무릎쪽 고장에 패인이있었다고 술회하고있다。

멕시코의 플로레스와의 13차대결은 80년10월12일 가네자와(金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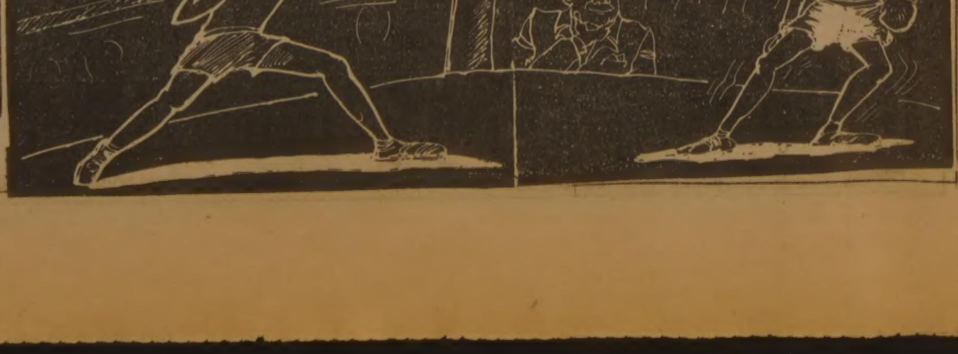
이대전에서 구시껜은 한회의 다운을빼고 중반에 점수를따 아주 근소한 차로 판정승했으나 주변의 의혹을 너무도 많이 샀다。

어떻게해서 가네히라회장의 위기의식은 폭발직전에까지 이르렀다。

경기가 끝나 초조한 표정을 하면서도 애써 태연하려는X에게 『정말했냐。됐다면 당신의말은 이제 그려효과가 없는 모양이다。이제부터는 약은 내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네히라 회장은 이제껏 설쳐 써먹은 下手人 X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같다。

그후에도 가네히라회장이 준비했던 약물은 몇종이 있었다。취재반은 그중 한종류를 입수했다。



◇구시껜·요오꼬의 13차방어戰績

회차	일자(장소)	상대	결과
획득	76·10·10(甲府)	J·구스만(도미니카)	7회KO
1차	77·1·30(東京)	H·리오스(파나마)	15회判定
2차	5·22(札幌)	R·말가노(베네수엘라)	〃
3차	10·9(別府)	M·마하차이(泰國)	4회KO
4차	78·1·29(名古屋)	A·바르가스(필리핀)	14회KO
5차	5·7(廣島)	H·리오스(파나마)	13회KO
6차	10·15(東京)	鄭相一(韓國)	5회KO
7차	79·1·7(川崎)	R·말가노(베네수엘라)	7회KO
8차	4·8(東京)	A·로페즈(파나마)	〃
9차	7·29(北九州)	R·페드로사(파나마)	15회判定
10차	10·28(東京)	T·아베라(필리핀)	7회KO
11차	80·1·27(大阪)	金龍鉉(韓國)	15회判定
12차	6·1(高知)	M·바르가스(칠레)	8회KO
13차	10·12(金澤)	P·플로레스(멕시코)	15회判定
패퇴	81·3·8(沖繩)	P·플로레스(멕시코)	12회KO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 WAS YOUR NAME AGAIN?

삼사십년간 한국어권에서만 산다가 갑자기 영어권속에 뛰어들자 생소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요, 그중 하나가 미국 이름을 부르는 일이다. 미국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도 단번에 그이름을 선뜻 외기란 정말 용이하지만은 않다.

그럴때는 What was your name again? (성함이 무엇이었던가요?)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이야기해줄 것이다.

한국 이름도 그네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어 이름이 서먹서먹한것 만큼이나 낯선 모양이다. 아직도 필자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미국인을 못보았을리만큼 미국인들의 발음은 어딘지 어색하기만하다. 친한 미국인까지도 여러번 가르쳐 주었지만 Byoung Chul이라고 first name을 불러주는 친구는 거의없고 숫제 Byoung 혹은 Chul이라고 불러 버린다. Chul은 그나마 애칭처럼 들려서 그런대로 괜찮은편이지만 Byoung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딱질색이었으나 이제 만성이 된지 오래다.

그건 그렇고 특히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 이름의 spell을 물어보고 대답할때 잘못 구별하는 발음들이 있다. 예컨대, M-I-N하면 M인지 N인지 구별이 잘안가는 모양 이다. 이런때는 M-I-N 이라고 일단 이야기 한다음 M as in Mary(메리의첫자엠), I as in Illinois(일리노이의 첫자인 아이), N as in Nancy(낸시의 첫자인 엔)이런식으로 철자를 불러주면 혼선을 피할수있다.

Kim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K as in King, I as in Illinois, M as in Mary이렇게 한다.

A : Hi! Are you having fun?
B : Yes. It's a lovely party. I'm glad I came.
A : I'm John Kim.
B : I'm Kathy Kovak.
A : I'm sorry. What was your name again?
B : Kathy Kovak.
A : 안녕하세요. 재미있으세요?
B : 네, 참 멋있는 파티군요. 오길 잘 했어요.
A : 내이름은 잔 킴 입니다.
B : 저는 캐티 코백 이에요.
A : 미안 합니다만 성함이 뭐라 그러셨던가요?
B : 캐티 코백 이에요.

*Bob은 Robert의 애칭 예:Tom(Thomas), Liz(Elizabeth), Kim(Kimberly)and Bill(William).
fun : 재미있는. He's great fun.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발음 again : 【어게인】은 영국식 발음이다. 미식발음은 【어겐】

ARE YOU MARRIED?

우리는 때때로 남의 사생활에 너무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결혼 했느냐?」Are you married? 「언제 했느냐?」 When were you married? 「부인은 몇살인가?」 How old is she? 「애들은 몇이나 있는가?」 How many kids do you have? 흡사 호구조사를 하는것과같은 느낌을 받을때가 있다.

철저한 개인주의인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사생활을 얘기하는것은 최소한 서먹서먹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때때로 「남의일에 참견 마시오」 None of your business. 라는 핀잔을 들을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이가 되면 가능하리라. 이때 Did you marry?라고는 하지않고 Are you married? 라고한다. 「또한 피곤하세요」 역시 Did you tire?가 아니고 Are you tired?이다.

A : Are you married?
B : No, I'm not.
A :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B : Yes, I have two older brothers.
A : Are they in America?
B : No, but they plan to join me next year.
A : 결혼하셨읍니까?
B : 아니오. 안했읍니다.
A : 형제 자매가 있으신지요?
B : 예, 형님이 두분계시니다.
A : 두분다 미국에 계신가요?
B : 아닙니다만 내년에는 두분다 미국에 오실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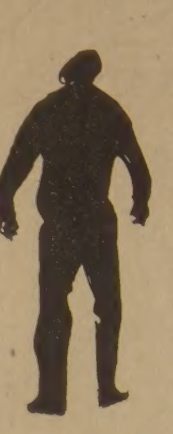
※주 join : 합하다. 만나다.
예) I'll join you later나중에 갈께
【발음】 married : 「메리드」 같이 끝의 D를 파열시키기보다 대화시는 「메릳」이라고 혀끝을 위치아와 잇몸사이에 붙여서 발음한다.
예) tired : 「타이어드」가 아니고 「타이엇」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⑯

지난줄거리
어머니는 총찬에게 늘 되풀이 되는 주의사항에다가 지하철을 타지 말라는 것을 덧붙인다. 땅이 꺼지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다는 거였다. 다혜를 어머니는 여우 같은 계집애라고 단정한다. 방죽골 이장 딸내미처럼 엉덩이 커서 자식 잘 낳는 며느리를 얻겠다며 내려간다. 총찬은 유괴사건 진행을 살펴보고 서여사를 만나러 H호텔로 달려간다.

넓은 코피숍을 훑어 보았다. 그만한 또래의 여자들이 많아서 엇그제 본 서여사가 누구인지 분간할 것 같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시간에 부인들이 호텔 코피숍에 앉아 조잘거리는 이유를 모를 것 같았다. 남편이 퇴근할 무렵인데도 마냥 앉아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볼 일이 있는 부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많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음흉한 것일까? 그 많은 부인들이 과부는 아닐 것이다. 차림새나 치장으로 보아 틀림없이 여유 있는 집 여자들이었다.

호텔 코피 한 잔이면 쌀 한 되가 분명히 넘는 액수였다. 백원어치 콩나물 사며 승강이하는 부인네들은 엉덩이가 뜨끈거려서 앉아있기 곤란한 자리였다. 나는 할수 없이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작은 칠판에 서여사라고 쓴 뒤에 작은 종을 치며 돌게 했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손을 드는 여자가 있었다. 곱게 차려 입은 여자였다. 엇그제 고수머리와 추태를 부리던 여자가 아니라, 정숙한 [illegible]다. 여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을 갖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거 돌려 드립니다.』

나는 서여사 무릎 위에 포장지로 싼 서여사의 속옷을 내밀었다. 서여사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죠?』

『엇그제 저한테 맡기고 도망가셨잖아요.』

『예?』

『그 얘긴 되돌려 주는 걸로 끝났읍니다. 다른 얘기가 진짜죠.』

『좋아요. 뭘 원하죠?』

서여사는 다가앉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엄숙했다.

『여기서 해도 됩니까?』

『올라가요.』

그녀는 일어섰다. 예쁘게 걸어가서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감상하며 따라갔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섰다. 그녀가 또박거리며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혀를 찼다.

『내가 이런 방으로 가자고 할 걸 미리 알았나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사내답게 말해요. 원하는 게 있으면 깨끗하게 말해요. 난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온 여자니까요.』

제 세게 나왔다. 웬만한 공갈배 쯤은 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배짱이었다.

『그럼, 옷을 벗으시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벗어 보시면 알지 않겠읍니까.』

그녀는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옷을 벗었다. 부자집 여자들은 겨울에도 옷을 껴입거나 두껍게 입지 않는 법이었다. 겉옷을 한꺼풀 벗으니까 바로 슈미즈 바람이었다. 나이 사십 가까운 여자치곤 너무나 빼어난 곡선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만, 돌아서요.』

여자는 돌아섰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녀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서여사는 침대 위로 발랑 자빠졌다.

『똑똑히 들어요. 난 그런 사내들과 질적으로 틀려요. 지금부터 묻는 말에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하면 당신은 끝장이 날 거요. 난 두번은 묻는 성미가 아닙니다. 살고 싶고 소문이 두려우면 바로 대답해요. 긴 설명 않겠읍니다. 나는 급한 놈이요.』

여자를 해치우고 나서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다. 마음 속에선 그놈의 욕망이 나를 붙잡고 곤두박질하고 있었다. 그러나 난 비겁한 사내는 되기 싫었다. 서여사가 체념한듯 고개를 끄덕였다.

『김갑산 회장 따님 얘기요. 그 김여사 남자관계와 가정 얘기를 아는 대로 해주시죠. 대충은 알고 왔읍니다. 그 애가 어떻게 낳은 애인가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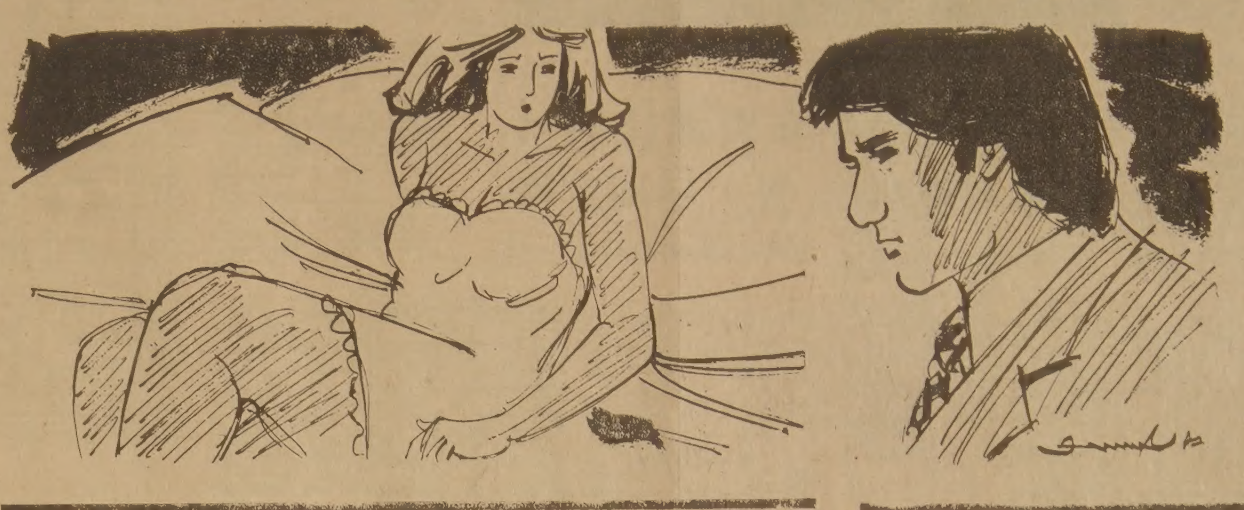
서여사는 눈을 크게 떴다.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김여사가 그런 줄은. 박실장하고 그 문제로 심각해졌었나 봐요. 김회장님이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매듭지은 걸로 알아요.』

『김여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지금은 미국에 가고 없어요. 대학때부터 연애했던 남자예요.』

『박실장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죽기아니면 살기로 나온 女子니 사내답게 얘기해봐요

그럼 옷벗고 돌아서봐…순간 쭉빠진 각선미에 혼미해져

안다 말이죠?』

『그래서 심각해졌던 거예요.』

『김여사하고 또 관계있는 남자들은 누구 누구예요.』

『윤비서밖에 몰라요. 다른 남자는 없어요. 정말예요.』

『김여사 입으로 얘기하던가요.』

『우리끼리 모이면 서로 터놓고 얘기해요. 박실장이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니까 배차기로 그러는 거예요. 김여사 불쌍해요.』

『그만둬요.』

서여사는 내가 적의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 순간부터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애초 김여사와 박실장의 결혼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김여사가 좋아하던 가난뱅이 대학생과 강제로 헤어지게 된 김여사는 김갑산회장의 정략적인 술수에 말려들어 애정도 없이 한참 끗발 좋다는 정치가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

결혼한지 일년만에 그 끗발 좋은 영감은 부정사건에 휘말려 들어가 관직에서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다가 병보석으로 나와서 죽어버렸다. 그것이 비극을 불지른 계기가 되었다.

발톱 잃은 고양이 신세인 박실장은 김여사에게서 노골적인 천대를 받기 시작했다. 김여사는 대학생때의 애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바람을 피우며 돌아다녔다. 배경 잃은 박실장은 더 못참고 별거선언을 했다. 김여사는 더 잘되었다면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정열적으로 남편 아닌 남자를 따라다녔다.

낯이 뜨거워진 김회장이 가문과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박실장에게 재산상속에서의 높은 비율을 문서로 약속하고 재결합시키는 일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김회장의 위신을 지키는 선에서 끝났다. 두 사람의 냉랭한 생활은 더 깊은 곳에서 생겼다. 김여사가 낳은 아들이 박실장의 애가 아니라는게 명백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김회장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 형식적으로 부부행세를 하는것 이외에 부부 노릇을 할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은밀한 쾌락의 늪에 빠져서 간섭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김회장은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불러 놓고도 차마 얘기를 못하고 더듬거렸던 것이었다.

『김여사가 박실장의 행동을 다 압니까?』

『알아요. 장난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놓아서 뒤 캐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읍니까?』

『매달 흥신소에서 보고서를 보내줘요.』

서여사는 나한테 정통으로 걸린 여자였다. 김여사와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줄곧 어울려다닌 사이였고, 한때 동성연애까지 한 사이였다고 실토했다.

서여사는 살아나기 위해서 부끄러움까지도 버렸다. 여자가 독한 마음 먹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알 것 같았다.

『박실장에 대해서 더 아는 거 없어요?』

『박실장, 그 양반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호적상 유괴당한 애가 그 다음 상속자가 되겠죠?』

『그런 거야 난 몰라요. 김여사가 박실장을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려고 미국에 있는 남자를 불러들인 적이 있어요.』

『혹시 박실장이 김여사의 뒷조사를 한다는 얘긴 못들었어요?』

『못들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심증을 굳히며 질문을 했다. 서여사는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같았다.

『아까 따귀 때린 거 미안했읍니다. 너무 표내고 다니시더군요. 고수머리 그 사람 소문난 제비족으로 여러 여자한테 공갈 사기쳐서 먹고 사는 남자였어요. 고마운 줄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우린 결코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맙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뒤따라 내려와 택시를 탔다.

은숙이가 가져온 정보는 피상적이었지만 박실장에게 혐의가 굳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놀라운것은 김여사의 친구들 가운데 반수 정도는 정숙한 주부의 탈을 쓰고 주간 카바레와 대낮의 여관이나 호텔에서 비밀스러운 남자관계를 갖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었다.

『내 낯이 다 뜨거워져요. 춤바람이 무섭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같은 여자로서 치욕적일 수 없었어요.』

은숙이가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실장 주변은 어땠어요? 그 쪽도 개판 오 분전일텐데.』

『그 시집갈 맘 싹 가셔졌어요. 그 책임은 총찬씨가 져야 돼요. 한마디로 징그러운 동물들…아니, 아프리카 어디선가 산다는 떼벌들 같았어요. 아예 내가 오입한다 하고 선포하며 다니더군요.』

『정 시집 못가게 생기면 내가 책임질께요.』

『별수 있을라구요. 여유가 생기면 남자나 여자나, 하구 다니는 것 빤해졌어요. 동방예의지국 어쩌구 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가서 코두레 해가지고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하나님, 귀 막아요. 저 여자 지금 헛것 본 거라구요. 우리나라 남자들 죄다 착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 죄다 정숙하다구요.』

진짜 부자들은 안 그럴 거예요. 때부자들 있죠. 땅장사에다 목 매달았거나 사기쳐서, 또는 도둑질해서 부자된 졸부 자식들과 그의 훌륭한 여편네들이 배때기에 든 기름 걷어내느라 그러는 걸 겁니다.

그런 무녀리들, 염라대왕이 알아서 공업용 미싱으로 드르륵 박아버릴 거고 마귀들도 알아서 쇠불미 달궈서 배때기와 엉덩짝의 기름 긁어낼테니까 사는 동안 실컷 지랄발광하라고 냅두슈.

하나님 무서워하는 친구들 아닙니다. 잘 생각하셨다가 어느날 갑자기 청계천 복개공사할 일 생길 때 그 치들을 갖다가 박아놔요. 똥물에 뛰기기도 아까운 인생들이니까요.

놀랍게도 主婦들이 오입을 한다고 선포하고 다니더군

그런 人間은 아예 미싱으로 드르륵 박아 버려야해요

나는 대충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김갑산 영감에게 찾아갔다. 김회장은 내가 나타나자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뭐 좀 알아냈나?』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애들을 까악 풀어놨으니까 곧 무슨 낌새를 알아낼 겁니다. 문제는 따님과 사위한테서 생길 수밖에 없겠던데요.』

『으음.』

김회장은 신음하듯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도 대충은 알고 있지 않겠읍니까?』

『모르겠지. 어떻게 제 자식을 유괴했다고 생각하겠나. 내 딸년이 그런다는걸 아는 사람도 없겠고. 이걸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자넬 부른 거지만 말일세.』

『우린 친구 아닙니까.』

김회장이 나를 쳐다보고 피식 웃었다. 옛날 농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경찰에다 이 정보를 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돼. 절대 안돼.』

『이게 모두 김회장님께서 욕심 부리다가 만든 겁니다. 이젠 그만 욕심 부리세요.』

『말도 안돼. 그러지 말고 나하고 작전을 짜세.』

『이번에 박실장이 제 손에 걸리면 뼈를 바술 겁니다. 그러니 경찰에다 정보를 주고 뒷수습이나 잘 하죠. 그게 좋습니다. 그만 욕심 부리세요.』

『안돼. 절대로 안돼. 나 좀 편히 죽게 해 주게나.』

늙은이가 편히 죽게 해 달라는데에는 할 말이 없었다. 김회장은 손자도 살려내고 딸년의 추악한 과거와 사위 자식의 독기를 가라앉힐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미 김회장도 딸년과 사위, 자식에게 짙은 혐의를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루트로 들어온 정보를 주겠네. 이건 꼭 비밀이 유지돼야 하네. 이 늙은이가 편히나 죽게 해 주게나.』

나는 맹세한다는 말을 했다. 김회장이 내민 정보서류 속엔 엄청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박실장의 사생활이 내가 캐낸 정보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여사에 얽힌 것들도 훨씬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두 애를 한꺼번에 축쳐내야 되네.』

『박실장만 털어내면 되잖아요.』

『아냐. 그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내 딸년이 계획적으로 박실장을 몰아 넣으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아닐 겁니다. 김여사가 박실장을 먼저 없애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청부업자와 접촉한 기록도 여기 있읍니다. 김회장님 조사철을 보니까 그 반증자료로 박실장이 눈치채고 김여사를 없앨 생각을 했거나 상속자인 애가 다른 핏줄이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술수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상착의는 목격자가 확실하고 접촉하는 걸 확실하게 보았다면 제가 쉽게 찾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나는 박실장을 감시해 왔던 김회장편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순간적으로 청부업자를 추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직 형사들야. 아주 베테랑이지. 정년퇴직한 원로 수사팀이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경찰에 연락해서 뒤처리해 줄거야.』

『그럼, 제가 시작하겠읍니다.』

『내 말 잊지 말게. 편히 죽게 해 주는거 잊지 말게.』

『명심하겠읍니다. 김회장님은 그 수사팀에게 제가 뛰어들더라도 도와주라고 좀 해 주세요.』

『걱정 말게.』

나는 그 길로 가물치 형님에게 달려갔다. 나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물이었지만 이런 경우엔 때를 써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춘삼이 형님 가지고 안되는 것도 가물치 형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왕초였다.

『형님, 부탁이 있어서 왔읍니다.』

가물치 형님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스스로 걸어와 이런 식으로라도 무릎을 꿇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않았을 것이다. 가물치 형님과 나의 눈싸움은 5분 정도나 계속되었다.

너무 지리하고 힘든 싸움이었다.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한판 붙고 말지, 이렇게 고통스런 싸움은 싫었다.

『말해라. 들어 주마.』

5분만에 가물치 형님은 내 등짝을 후려쳤다.

『조건 없이 들어 주십쇼. 이런 친구를 찾읍니다. 김갑산 회장네 손자 유괴사건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그린 몽타지를 내밀었다. 가물치 형님은 참모들에게 그 그림을 한 바퀴 돌렸다.

『형님네 식구 맞을 겁니다. 다른 거라면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이건 비겁한 어린애 유괴사건입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는 가물치 형님이 입을 열었다.

『내 오른팔이라도 어린애 유괴한 놈은 그냥 둘 내가 아니다. 넘겨줘라.』

나는 약도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가물치 형님이 한 마디 덧붙였다.

『나한테 신세진 거 잊지 마라.』

나는 대꾸 없이 나왔다. 발목을 잡힌 셈이지만 어린애만은 꼭 구하고 싶었다. 가물치 형님이 역시 거물은 거물이었다. 아무리 의리 하나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유괴범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람됨이가 그 바닥에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 길로 은숙이 일행과 D동으로 달려갔다.

『은숙씬 용주 그 친구를 꾀어내요. 우리 애들은 미리 잠복시킬께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눈치 봐서 용주를 꺾어앉혀요. 김회장이 경찰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막판엔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은숙이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뛰어다닌 보람이 없다는 투였다. 그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김회장이 시키는 일 이외의 짓은 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었다. 김회장의 체면과 그 영감 말대로 편히 죽을수 있게 하기 위해선 막판의 여러가지 뒷수습할 것은 김회장에게 일임해야만 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용주 그 친구가 눈치 채고 튈수도 있어요.』

은숙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풀지는 않았다.

『넌 지금 달려가서 상세하게 보고해라. 우리가 김회장 지시 있을때까지 대기하고 있겠다고.』

발 빠른 녀석이 차를 몰고 내달렸다. 위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D동 현장 근처에 데리고 왔던 녀석이었다.

『자, 은숙씨가 들어가요. 이건 비상시에 신호로 써요. 소리가 좀 요란할 겁니다. 위험하면 이걸 누르고 내던져요. 그럼, 내가 뛰어들어갈테니까요.』

은숙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내가 가리키는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살아오도록 노력할께요.』

은숙이가 이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전화: 766－5639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한 방 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 약 "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 · 카텐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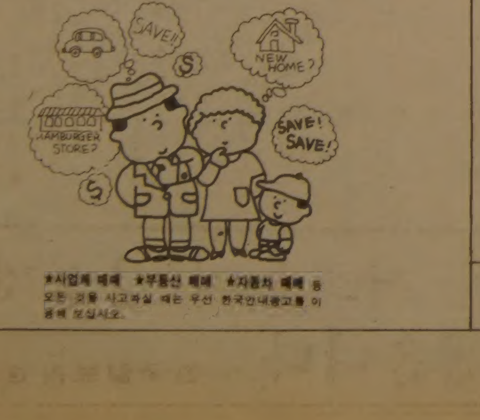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illegible]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요.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여행」을 팝시다
여가를 이용해서 돈을 법시다. 파트타임 희망자로 단체, 업체, 노인그룹, 클럽등과 접촉이 있는분은좋은기회 입니다.
본사가 훈련하고 뒷받침 해줌. 영어 필요. 코미션만 지불.
☎ : 675—1960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구함.
출퇴근도 가능
☎ : 7 4 2—0434

경험있는 홀 타임 헬퍼(남자분) 구함
1666 Queen St. W. ☎ : 532—6143, 532—9638

피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중고차를사서 피해를 입은분은 급히 연락바람.
☎ : 928—0556(Mr. Kim)

경험있는 캐셔 구함. 서부지역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 : 767—0762

경험있는 가게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베이뷰×핀치)
☎ : 223—3865, 493—5895

도너스 가게에서 밤일(Full Time)하실분
남자분 구함(밤12시~아침8시)
☎ : 531—2689

일요일에 가게 캐셔해주실분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킹스톤×미드랜드)
전화:266—6355

매매및 양도

① 최신식 방갈로, 사정에의해 급히 팔고자함.
3베드룸(핀치×베더스트)
좋은 모개지, 아스킹 : $129,000
②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③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요구액 : $32,000
④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가정 사정으로 급매"
적은 자본으로 베커 운영하실분
혼자운영 가능 2층에 2베드룸 포함.
주매상 : $3,500이상
렌트 : $472(월)이층살림집 포함
☎ : 535—3550

직접 만드는 델리카티슨(빵집) 매매
새장비 구입, 워크—인 쿨러, 바쁜지역임.(오릴리아)
아스킹:$59,000+스탁
전화:862—0788 교환 53 Mr.Don Whitfield,
A.E.Lepage(Ont) Ltd.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생선가게 팝니다.(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추러(2채)
아스킹 : $99,800, 다운페이먼트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26,000)
드라이크리닝($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과일점이나 기프트 샵을 하기에 좋은
더프린 근처 1784 Eglinton Ave. W. 에
위치한 건물팝니다.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의 벗 한국일보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환영
Pape Subway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독신자에 한함. 월 $190
가구 갖춰 있음(St. Clair W. 근방)
☎ : 763—3289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블루아)

구 혼

배우자 구함, 본인은 현재 캐나다 방문중인 현 39세의 건강한 독신남자임.
연락처:537—0238 Mr.Kim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82—5194(여정용)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최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 676•1173 769•9468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팰리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8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한국일보 안내광고＊

2ND CLASS MAIL NO. 5248